

## 방글라데시 치타공 산악지대(CHT) 인권 상황에 관한 토론회

# Open forum on human rights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Bangladesh

2008년7월30일 국가인권위원회  
July 25, 200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onference hall



주최: 재

인연대, 참여불교 재가연대, 경계를 넘어, 국경 없는 마을, 나와 우리

후원: 아름다운 재단, 참여불교재가연대, 보문선원

Organized by: Jumma People`s network-Korea (JPNK),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BSR),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IFS), Borderless village, Nawauri (I and We)

Sponsored by: Beautiful foundation,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BSR), Bomun Meditation center

한 줌머

## 프로그램 내용

2008년7월30일 수요일

14.00 등록  
14.05 인사말  
14.10 발제 시작  
15.15 조합 토론  
16.00 정리

**축사: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 교수 및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주제 및 발제자:**

(주제 1) 줌머 토착민의 자치권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Subal moni Tangchangya**(줌머 자치권 운동 활동가/재한 줌머인연대)

(주제 2) CHT 문제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와 방글라데시 시민사회의 대응

**Dr. Meghna Guhathakurtha** (전 다카 대학 교수 현재는 **Research Initiative Bangladesh** 라는 단체에 상임이사)

(주제 3) 재한 줌머 공동체와 한국 시민 사회의 연대 방안 모색(수진, 경계를 넘어 활동가)

토론자:

오경석 사회학박사, 국경 없는 마을 상임이사,

이호택 국제난민 지원 단체 <피난처 >대표,

장상미 시민 사회 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사회자: 김규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발행자: 재한 줌머인연대**

**발행일: 2008년7월30일**

**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 리 446**

**전화 번호(031)997-5961**

[www.jpnk.org](http://www.jpnk.org)

## Program contents:

**July30, 2008(Wednesday)**

**14:00 registration**

**14:05 congratulatory address**

**14:10 Presentation**

**15:15 General discussion**

**16:00 Closing**

**Congratulatory address: Guangso Park**,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dept of physics)

### **Lectures and lecturers**

**Lecture1.** The democratic movement for human rights of Jumma people of Chittagong hill tracts and the need of international solidarity.

-Subal moni tangchangya, Activist Jumma People`s network-Korea

**Lecture 2:** Responses of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and the Bangladesh Civil Society to Problems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Dr. Meghna Guhathakurta, Ex. professor of Dhaka University, executive director of Research Initiative Bangladesh (RIB)

**Lecture 3:** The way of making solidarity between Jumma activists in Korea and Korea civil society

-Han Soo Jin, activist of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 **Discussants:**

Dr.Oh Gyung Suk, Executive director of borderless village<a NGO>

Mr.HoTaeg Lee, President of PNAN<a humanitarian organization working for refugee>

Sangmi Jang, Planning manager, citizen`s action network<a civil society organization>

**Moderator: Kyu Whan, Kim,** Activist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

### **Publication:**

Jumma People`s network-Korea (JPNK)

Date of publication: July30, 2008

Address: Gyunggido, Gimpo-city, Yangcheonmyun, yanggok-Ri-446

Tel :( 031)997-5961,Email:jpnk2@hotmail.com

[www.jpnk.org](http://www.jpnk.org)

## 목 차

인사말	P 5
-박광서 교수, 참여불교 재가연대 공동 대표	
발제 1:	P-6
치타공 산악지역 줌머인의 인권을 위한 민주운동과 국제 연대의 필요성 The democratic movement for human rights of Jumma people of Chittagong hill tracts and the need of international solidarity-	
-Subal moni Tangchangya, Activist of Jumma people`s network-Korea	
발제 2:	P-15
치타공 산악지대(CHT) 문제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Responses of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and the Bangladesh Civil Society to Problems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Dr.Meghna Guhathakurta, Executive director, Research Initiative Bangladesh( RIB)	
발제 3:	P-44
한국 시민사회의 줌머 운동 연대 방안 -수진 (경계를 넘어 활동가)	
토론 1: 오경석(국경없는마을 상임이사)	P-50
토론2: 이호택(피난처 대표)	P-52
토론3: 장상미(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P-54

쑹머인들의 용기에 열정에 관심과 연대를 약속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할 때 세상은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줄 아는 사회가 인류가 꿈꾸는 자유선진사회일 것입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의 독립이 치타공 산악지대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소수 민족 쑹머인들에게 오히려 전에 없던 시련이 기다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스스로의 언어, 문화, 종교, 역사를 이어가며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70만 소수민족인 쑹머족의 소박한 희망을 인권탄압과 자치권 박탈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방화, 약탈, 납치, 고문, 강간, 살인 등 반인간적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인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로 비쳐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도 무자비한 탄압을 피해 20만 명이 넘는 쑹머족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 잃은 설움을 뼈 속 깊이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에 결성된 쑹머민족네트워크 한국지부(JPNK)는 법무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10여 명의 쑹머족 활동가들의 둥지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이나 주말에 고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의 지구촌 아래 국경과 민족과 종교를 넘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토반입니다. 이미 다 인종, 다문화 사회가 된 한국사회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수년 전부터 인권시민단체들과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불교단체들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마음만큼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넓은 바다도 그 시작은 작은 시냇물이듯이, 오늘의 진지한 마음들이 모이고 합쳐져 치타공 산악지대 인권상황에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혼자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하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데도 없다(nowhere)는 '부정과 절망'을 지금 여기(now here)라는 '긍정과 희망'으로 세상 바꿔 읽기를 할 줄 아는 이들에게만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국제연대를 위해 한국에 건너와 동분서주하고 계신 재한쑹머연대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에 격려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관심과 연대를 약속합니다.

2008년 7월 30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박광서

치타공 산악지역 줌머인의 인권을 위한 민주운동과 국제 연대의 필요성

-수벌 모니 탕창야, 재한 줌머인 연대 활동가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줌머 인과 치타공 산악지역(Chittagong Hill Tracts, CHT)에 대해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처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드문 것이 사실이다. 방글라데시 동남부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 지역에는 토착 소수민족들인 차크마(Chakma), 마르마(Marma), 트리푸라(Tripura), 탕창야(Tangchangya), 쿠미(Khumi), 루샤이(Lushai), 봄(Bawm), 판쿠아(Pankos), 차크(Chak), 무롱(Murong), 그리고 키앙(Khiang)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을 통틀어 일반적으로 “줌머”인이라 부른다. 치타공 산악 지역은 북쪽과 동북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버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서쪽에는 치타공 주가 있는 방글라데시의 구릉 지역이다. “치타공 산악 지역”과 “치타공 시(市)”의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포함해 치타공 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줌머 인이나 재한 줌머인연대(이하 JPNK)에서 이야기 한 인종 차별이나 종교 탄압,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치타공 시는 방글라데시의 큰 대도시 중 하나이다. 그리고 CHT는 세계의 산악지역(랑가마티 Rangamati, 반다르반 Bandarban, 카그라차리Khagrachari 지역)으로 이루어진 행정 구역이며 가장 큰 규모의 산악 지역이다. 그 면적이 방글라데시 전체의 1/10을 차지한다. 이 지역은 산악 지형의 특성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다른 평야 지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치타공 산악 지역의 자랑이다. 치타공 산악 지역은 방글라데시와 구분되는 자신만의 정치적인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다. 치타공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줌머 인들은 주류 인구인 “벵갈리”(Bengali 또는 Bangalee)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민족성과 종교적 신앙, 언어, 사회 관습, 그리고 전통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 줌머 인은 민족적으로 몽골인종에 속하고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힌두, 기독교이지만 방글라데시의 주류 인구는 이슬람교를 믿는다.

치타공 산악 지역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차별적이고 탄압적인 정책과 이에 맞선 줌머인들의 무장과 비무장 저항운동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줌머 인들은 방글라데시가 새로운 국가로 생겨나기 시작한 1971년 이래로 주류인 벵갈리 인들에 의한 공격적인 인종청소를 경험해야만 했다. CHT의 줌머 토착민들이 벵갈리 자유의 투사(Mukti Bahanee)와 함께 싸우고 방글라데시가 당시의 서파키스탄(현재의 파키스탄)의 탄압과 박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줌머 인에 대한 또 다른 탄압과 박해가 치타공 산악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줌머 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쭌머 인들은 영국 식민정부가 제한적인 자치권을 통하여 선주민을 보호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구적인 정착민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CHT 자치법안 1900" 또는 "치타공 법규 1900"에 따른 이 지역에 대한 자결권을 요구한다. 하지만 쭌머 인들에게 돌아온 방글라데시 정부의 답은 그 반대였다. 앞서 언급한 법은 치타공 산악 지역에서 식민통치가 끝난 날(1947년 8월 14일)부터 선주민이나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이롭지 않은 방향으로 여러 번 개정되었다. 영국의 통치가 끝난 후 60년 사이에 쭌머 사람들은 경제적인 탄압과 집단적인 공격과 대량 학살, 강제 퇴거와 토지 강탈로 인한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폭력들은 특히 방글라데시 독립 후에 발생하였고, 과거의 방글라데시 정부들의 "인구 이식 계획"하에 외부인과 비선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쭌머 인구를 능가했다. 그러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정책은 인권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쭌머 인들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와 그 영향:

방글라데시 정부가 치타공 산악지역의 자치권을 부정하고 당시 정부의 수반이 쭌머 인들에게 "벵갈리 민족성"을 강요한 이후, 쭌머 인들은 방글라데시 정부에 저항하는 한정적인 게릴라 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집중적인 군사화와 인구 이동의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로 대량 학살과 무차별적인 체포와 고문,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제 퇴거, 그리고 토지 강탈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국제적인 압력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1985년 이후 반군과 연속적인 회담을 가졌고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 없이 1997년 12월 2일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다.

치타공 산악 지역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부인:

치타공 산악 지역의 문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식하여 더 복잡해졌다. 1980년대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치타공 산악 지역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인 문제"라고 여겼다. 1990년대 말에 들어서 정부가 치타공 산악지역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였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해결하는 국내문제"라고 말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1997년의 평화협정은 제 3자나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맺어졌다. 그 결과 평화협정은 쭌머 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쭌머 인들의 주요한 요구와 평화협정의 핵심 내용은 실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실행되지 않는 평화 협정은 쓸모 없는 것이고 정부가 진심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개입이나 감시 없이 협정의 내용이 실행되기는 불가능하다.

반(反) 평화협정과 새로운 운동:

CHT민중위원회(PGP)와 산악학생위원회(PCP), 그리고 CHT여성연맹(HWF)은 CHT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후로 쭌머 인들의 주요한 요구 사항이 협정문에 포함되도록 강하게 요구

했다. CHT에서 벵갈리 정착민들을 철수시키고, 1900년의 CHT 규정에 따라 외부인이 다른 지역에서 CHT로 이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CHT만의 입법부를 설치하는 것이 줌머 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12월 26일에 완전한 자치권을 얻기 위한 민주운동을 이끄는 “연합민중 민주전선(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 UPDF)”이라는 정당을 만들었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친 평화협정 그룹들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했다.

#### 인권 침해의 방식:

방글라데시 정부는 다양한 탄압과 박해의 방식을 줌머 선주민들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러왔다. 인권침해의 방식은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벌어졌던 인권침해의 종류와 방식과 많이 다르지 않다. 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토지 강탈과 집단적인 위협, 군대가 “테러리스트”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고문, 종교 박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이다.

#### 토지 강탈과 집단적인 위협:

1977년 방글라데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의해 CHT의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땅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몰수되었고 줌머 인들이 소유했던 수십만 에이커의 땅은 벵갈리 정착민들에게 빼앗겼다. 많은 줌머인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땅 소유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서를 갖고 있지 않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벵갈리 인들을 줌머 인의 땅에 정착시키고 정착민들에게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서를 발급하였다. 지역 정부의 관리들과 군인들은 그러한 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줌머 인이 토지소유권에 대해 항의를 하면 군대의 위협을 받거나 벵갈리 인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당한다. 최근의 사례로, 2008년 3월에 토지 강탈에 항의하는 줌머인들이 디히날라(Dighnala) 지역 두이틸라(Duitilla) 군부대 소속의 군인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sup>1</sup> 2008년 4월 20일에는 줌머 인들이 여러 차례 토지 강탈에 항의하자 벵갈리 정착민들이 랑가마티(Rangamati)지역 바가이차리(Baghaichari)에 있는 사제크 유니온(Sajek Union)에 속해있는 4개의 줌머 마을에서 77채의 가옥을 불태웠다.<sup>2</sup> 다카(Dhaka)에 있는 CHT인권감시포럼(Hill Watch Human Rights Forum)에 따르면 반다르반(Bandarban) 주에서는 정부와 군대, 벵갈리 정착민들이 569,538.40에이커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sup>3</sup>

---

<sup>1</sup> CHT news.com news No-19/2008

<sup>2</sup> Chtcnews.com News No. 70/2008, April 27, 2008( victim hold press conference)

<sup>3</sup> Hill watch human rights forum(HWHRF): Report on recent land grabbing in Khagrachari and Bandarban districts of Chittagong Hill Tracts(2007~)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군대의 고문:

평화협정 이후 치타공 산악지역의 군대는 무고한 줌머 인들, 특히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더욱 탄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군대는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농촌 지역의 줌머 마을에서 가옥 수색 작전을 벌이면서 체포와 고문, 살인을 저질렀다. 테러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은<sup>4</sup> 군대가 줌머 인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괴롭히기 위한 주요 전략이다. 무고한 줌머 젊은이가 체포되면 군대는 곧바로 총기나 탄약 등을 그의 집에 두고 사진을 찍는다. 그런 다음 그에게 심한 고문을 가한 후 법률기관이나 경찰서에 넘긴다. 그러면 피해자는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구금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2008년 7월 7일에 비라이차리(Bilaichari) 지역에서 줌머 인 니란잔 차크마(Niranjan Chakma)가 군대의 구타를 당해 사망했고 7월 9일에는 다른 줌머 인 3명이 구타로 사망했다.<sup>5</sup> 이러한 사건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뉴스가 되지도 못한 채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종교 박해:

1980년 랑가마티(Rangamati) 지역 카우칼리(Kawkhali)에 위치한 지역 불교사원 앞에서 대량 학살(카우칼리 학살)이 발생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불교 승려가 살해되고 사원과 불상이 파괴되는 사건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군대의 종교 박해 전략은 변화되었다.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군대는 종교적인 대중 집회를 못하게 하고 불교 사원을 새로 짓지 못하는 금지령을 내렸다. 작년 카그라차리(Khagrachari) 주에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새로운 사원을 지을 수 없다는 공고가 내려졌다. 실제 방글라데시 헌법에는 국가의 종교가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금지령은 나와있지 않다. 2007년 7월 17일 방글라데시 군대는 카그라차리(Khagrachari) 주 락쉬미차리(LakshMichari) 지역에서 외진 산 속에 위치한 명상센터가 달려있는 불교사원을 파괴했다. 2007년 11월 5일, 바부차라(Babuchara) 군부대 지휘관 콤루자만(Qamruzzaman) 소령이 그의 부대로 지역의 줌머 지도자들을 불러들여 종교 행사를 금지할 때 확성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 지휘관은 갑작스런 금지명령에 대해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고 다만 카그라차리(Khagrachari) 주 부행정관의 허가장을 받아왔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만 덧붙였다. 그런데 이슬람 성원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하루에 다섯 번씩 확성기를 사용한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줌머 여성은 줌머 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쉽게 방글라데시 군대와 벙갈리 정착

---

<sup>4</sup> Then and now: a report published by Asian center for human rights (ACHR), a New Delhi 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

<sup>5</sup> CHT news.com: news no 122,123/2008

민들의 공격과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sup>6</sup>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줌머 여성들이 유괴나 성폭행, 살해를 당한 사례들이 많다.

결론:

줌머인들의 비참한 처지와 치타공 산악지역의 문제는 국내와 국제 사회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시민사회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일반 사람들을 끌어오기 직전에 놓여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은 치타공 산악지역의 문제가 단지 줌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한다. 오히려 방글라데시와 방글라데시 사람 전체의 국내 정치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일부는 CHT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심각함이 덜한 문제라고 여긴다. 반면, 인권단체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비 정부기구와 같은 쪽에서는 선주민들의 인권과 천연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치타공 산악지역 줌머 인 운동의 주요한 목적이 주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요 정치정당인 연합민중민주전선(UPDF)<sup>7</sup>을 따르는 운동단체들이 폭력이나 무장투쟁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치타공 산악 지역 선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평화적인 운동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줌머인들의 운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해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동원해 평화적인 운동을 억압하려 해왔다. 이러한 과정이 CHT를 더욱 폭력적이고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지역의 평화를 지속시키고 줌머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 The democratic movement for human rights of Jumma people of Chittagong hill tracts and the need of international solidarity

-Subal moni Tangchangya, Activist, JPNK

A very few people in Korea know about the Jumma people and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of Bangladesh and only few of them are acquainted with the problem and poor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CHT). The Chittagong Hill tracts(CHT), the south-east part of Bangladesh which is a home to indigenous ethnic minorities such as the Chakma, Marma, Tripura, Tangchangya, Khumi, Lusai, Bawm, Pankhua, Chak, Murong, and Kiang. These groups of indigenous people are collectively called the "Jumma people".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is a hilly region of Bangladesh bordered with India to the north and north-east, Myanmar to the south and the south-east and Chittagong district to the west. Many foreigners including Korean who ever visited to Chittagong city feel doubt on what Jumma people as well as "Jumma people's network-Korea" claim regarding racial discrimination, religious persecu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 due to the

---

<sup>6</sup> <http://www.angelfire.com/ab/jumma/rape.html>

<sup>7</sup> 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www.updfcht.org](http://www.updfcht.org)), is one of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of the Jumma people which has launched democratic movement for self determination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similarity of the name of “Chittagong hill tracts (CHT)” and “Chittagong city”. Chittagong city is one of the big metropolitan cities in Bangladesh. On the other hand, Chittagong Hill Tracts (CHT) is a distinct and the biggest hilly region comprised of three hill districts (Rangamati, Bandarban and Khagrachari district). Its land area makes the one-tenth of the total land area of Bangladesh. Due to hilly structure, the region is fully different from other plain-parts of the country.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of the indigenous people living there in is another specialty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region. Even the region have own political history different from that of entire Bangladesh. The Jumma people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are different from main stream population who are called “Bengali “or “Bangalee” in respect of ethnicity, religious belief, language, social custom and tradition and lifestyle. Ethnically they are of mongoloid race; religiously mostly Buddhist followed Hindu and Christians while, majority of mainstream people are Muslim by religion.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Chittagong Hill tracts is the problematic place in Bangladesh because of the discriminatory and aggressive state policy of successive governments of Bangladesh and armed and unarmed resistance movement of Jumma people. The people had to experienced aggression and offensive action of ethnic cleansing by the main stream populat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date on which Bangladesh begun to emerge as a new state in 1971. Though Jumma indigenous people of the Chittagong hill tract(CHT) fought along with Bangalee freedom fighters(*Mukti Bahanee*) and Bangladesh emerged to put an end to the oppression and persecution of the then west Pakistan(present Pakistan), but practically another era of oppression and persecution against Jumma indigenous people began in the Chittagong Hill tract. Jumma people are still living in an atmosphere of fear and horror.

Jumma people demand for self determination in the region on the light of “Chittagong hill tract manual law of 1900” or “Chittagong regulation 1900” that introduced by the British colonial government to safeguard the indigenous people through which limited autonomy was allowed in the region and permanent settlement from other places outside the Chittagong hill tract has been prohibited . But the Jumma people have been responded by the government in hostile manner. The said law was amended several times after the last date of colonial rule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14 August 1947) without producing any benefit for the indigenous people or original inhabitant of the CHT. Within some sixty years after British rule the Jumma people has to suffer a lot economic oppression, communal attack and mass killing, force eviction and land grabbing. Such acts of violation specially took place after the independence of Bangladesh and exodus of outsiders or non-indigenous people surpassed the Jumma population under “population transplantation scheme” of the past successive governments. Such policy of the government resulted in human rights abuses in the hill tracts, which now cry for international attention.

####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nd effect:**

After the Bangladeshi authority`s denial of rights to autonomy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and the imposition “Bengali ethnicity” on the Jumma people by then head of the government, Jumma people launched a limited guerilla warfare against the Bangladesh government. But the government took counter measure by heavy militarization and population transfer that resulted in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like mass killing, indiscriminate arrest and torture, rape of women, force eviction and land grabbing. Through the international pressure Bangladesh government had dialogue with the insurgents since 1985 that led to signing a peace deal on 2<sup>nd</sup> December 1997 through consecutive dialogues with out decisive resolution on the problem.

#### **Government`s denial of the CHT problem:**

The problem Chittagong hill tracts (CHT) became more complicated because of wrong track of the Bangladesh governments in identifying the problem no matter what it was intentional. In the contemporary period of 1980 Bangladesh government identified the CHT problem as a merely

“economic-problem”. Though CHT problem was recognized as “political problem” in the end of 90 decades still it is an “internal problem that be solved with out international interference” what government claim today. According to this policy, the CHT peace deal of 1997 was signed without engaging a third party or international intervention. As a result the peace deal could not reflect the expectation of the people .Even, main demands of the people and the main points of the peace deal remained unimplemented. A peace deal is useless without implementation and implementation is impossible without any intervention or international monitoring unless government does it cordially.

**Anti peace deal and fresh movement:** CHT peoples council( Parttya gana parishad),Hill Students council(PCP) and Hill women federation(HWF) put strong reservation against the CHT peace deal before and after it was signed for the main demands of the Jumma people were included in the draft of the peace accord. *Withdrawal of the Bengali settlers from the CHT, legal prohibition of further population transfer into the CHT from other parts of the country on the light of CHT regulation of 1900 and own legislature for the CHT were the main demands of the Jumma people.* Pro-anti peace accords groups formed another political party called “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 (UPDF) on 26 December, which has been spearheading a democratic movement for full autonomy in the region and facing strong oppression from Bangladesh government and pro-peace accord groups.

**Pattern of human rights violation:**

Bangladesh government has various patterns of oppression and persecution through which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re being committed against the Jumma indigenous people. They are not much different in categories and style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 committed during the pre-peace accord era. Force land grabbing and communal tension, military torture against so called terrorist, persecution on religion and sexual harassment on the women are the main categories of human rights abuses.

**Force land grabbing and communal tension:** Thousands of acres of lands had been assimilated for military purpose in the CHT region and hundreds of thousands acres of land belonging to Jummas grabbed by the Bengali settlers by the direct support of the government since 1977. Many Jummas do not have legal documents on their land possession for they enjoyed their traditional land rights since the time immemorial. Taking this advantage, Bangladesh government settles Bengali’s on Jummas lands and issues ownership documents to the settlers.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s and armies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implantation of such plots. When Jumma land owners protest they either face intimidation from army or physical attack from Bengali settlers. As for example, a group of Jummas were tortured by armies of *Duitilla army camps* in Dighinala sub-district while they were protesting against land grabbing<sup>8</sup> in March this year. On April 20, 2008 seventy seven (77) houses of four Jumma villages in Sajek union under Baghaichari sub-district of Rangamati district were burnt down by Bengali settlers on series of Jummas protests against land grabbing.<sup>9</sup>

According to Hill Watch Human rights Forum (HWHRF), a Dhaka 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 569,538.40 acres of land is under illegal occupation of government, army and Bengali settlers in Bandarban district of the CHT.<sup>10</sup>

**Military torture against so called terrorist:** After the peace accord, army in the Chittagong hill

---

<sup>8</sup> CHT news.com news No-19/2008

<sup>9</sup> Chtnews.com News No. 70/2008, April 27, 2008( victim hold press conference)

<sup>10</sup> Hill watch human rights forum(HWHRF): Report on recent land grabbing in Khagrachari and Bandarban districts of Chittagong Hill Tracts(2007~)

tracts became more aggressive against the innocent Jummas, especially the youth in the rural area. On the pretext of fighting with terrorist army conduct home search operation in the Jumma villages of rural area that result arrest, physical torture and killing. Making terrorist<sup>11</sup> is the main strategy of army that use for arbitrary harassment on the Jummas. Soon after arrest of any innocent Jumma youth, the army put home made gun or few types of ammunition for photograph the arrestee and then hand over to legal authority or police after serious torture. Then victim has to face long term of detention on the process of legal suite. Recently, on 7 July 2008 one Jumma called Niranjan Chakma was beaten to death by army and two days later on the 9 th July another three also beaten resulting another death in the same area of Bilaichari sub-district under hill district.<sup>12</sup> Such incidents took place every now and then in the past and gone without becoming a news.

**Persecution on religion:** Mass killing (Kawkhali massacre) took place in front of Buddhist temple in 1980 at Kawkhali sub-district of Rangamati district. Killing of Buddhist monk, destruction of Buddhist temple and Buddha statue occurred innumerable times in the past decades. The strategy of religious persecution of armies so far changed. According to retrospect's of the recent days, armies use to put bar in holding religious mass gathering and put direct prohibition in building new Buddhist temples. Last year, a notice was issued in the Khagrachai district that says no new temple can be constructed without prior permission of the authority. Actually, Bangladesh constitution does not impose such prohibition although state religion of the country is Islam. On the 17 July 2007 a Buddhist temple cum meditation center has destructed by army in the remote mountainous area of Lakshmichari sub-district under Khagrachari district. On 5 November 2007, Major Qamruzzaman, commander of Babuchara military zone, called the local Jumma leaders to his camp and threatened them not to use loudspeaker for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ligious ceremony.

The Major gave no reason for the whimsical embargo, but added that he would allow using loudspeakers only if they could show written permission from the Deputy Commissioner of Khagrachari district in this regard. Besides, loud speakers are used in Muslim Mosque five times a day without any disturbance.

**Sexual harassment on the women:** Jumma women are the most vulnerable community of Jumma people, easily targeted and victimized by the Bangladesh army and Bengali settlers.<sup>13</sup> Many cases of abduction, rape, and killing recorded till the recent months.

**Conclusion:** The plight of Jumma people and the problem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are se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by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Civil society of Bangladesh is on the verge of mobilizing the general people from the positive perspective. Many people in Bangladesh now try to understand that the Chittagong hill problem is not merely a problem of Jumma people. Rather it a national political and human rights problem of Bangladesh and people of Bangladesh as a whole. Some international consider the CHT problem as a minor political problem with which international community need not involve. On the contrary, some communities like human rights groups and NGO's based on environment feels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their collective rights on natural resources.

Since, the main goal of the of the Jumma people's movement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is not to gain sovereignty or the movement being carried out by the main political party United people's

---

<sup>11</sup> Then and now: a report published by Asian center for human rights (ACHR), a New Delhi 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

<sup>12</sup> CHT news.com: news no 122,123/2008

<sup>13</sup> <http://www.angelfire.com/ab/jumma/rape.html>

democratic front (UPDF)<sup>14</sup> is not based on violence or armed struggle, international communities have enough space to play role for the peace full movement for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It is regrettable that Bangladesh government has been responding to the Jumma people's movement from opposite perspective. Government of Bangladesh has been trying to suppress the peaceful movement by means of violence in the name of fight against terrorism. This process may lead the CHT into more violence and unrest. There fore, international communities should play a vital role to sustain peace in the region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Jumma people.

## 발제 문 2

### 치타공 산악지대(CHT) 문제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메그나 구호타쿠르타(Meghna Guhathakurta)

#### 소외된 치타공 산악지대(CHT)

방글라데시 남서쪽에 위치한 치타공 산악지대(Chittagong Hill Tracts, 이하 CHT)는 넓이가 5,093평방 마일로 방글라데시 전체 국토의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CHT는 랑가마티(Rangamati), 카그라차리(Khagrachari), 반데르반(Banderban), 이 세 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골짜기와 여기저기에 급류가 흐르는 낭떠러지가 있는 가파른 지형과 초목이 빼곡히 들어찬 모습 등은 주로 평평한 삼각주의 총적으로 이뤄진 방글라데시의 다른 대부분 지역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1860년 치타공 산악지대가 영국 식민지 정부로 병합될 당시, 그 지역에는 13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차크마(Chakmas), 마르마(Marma), 트리푸라(Tripura), 탕창야(Tanchangya), 리앙(Riang), 무롱(Murang), 루샤이(Lushai), 봄(Bawm)과 판코(Pankos), 쿠키(Kukis), 차크(Chak), 쿠미(Khumi), 므로(Mro), 키양(Kheyang)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소수민족은 스스로를 줌머(Jumma, 차크마 단어)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화전을 의미하는 '줌(jum)' 농사를 지어온 데서 비롯되었다.

줌머 민족의 고난은 1960년대 초반에 그 지역에 수력 댐이 건설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1,036평방 킬로미터의 토지와 40킬로미터에 달하는 최적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으며,

---

<sup>14</sup> United people's democratic front([www.updfcht.org](http://www.updfcht.org)) is one of the two major political parties of the Jumma people which has launched democratic movement for self determination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약 10만 명의 줌어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쫓겨났다. 1964년, 쫓겨난 줌어인들 가운데 약 4만여 명은 어쩔 수 없이 인도로 건너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에 정착했다. 1971년,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뒤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에서 <자나 삼호티 사미티(Jana Samhiti Samiti, 이하 JSS)>의 창립자인 마나벤드라 나라얀 라르마(Manabendra Narayan Larma)이 CHT 출신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당선된 뒤 그는 줌어 민족을 위한 헌법상의 보호조약과 권리를 요구했으나, 그의 요구는 이내 묵살당했다. 이런 노력에 뒤이어 그는 줌어 대표단을 이끌고 CHT의 지역자치를 요구하는 네 개 핵심조항이 담긴 각서를 그 당시 총리였던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Sheikh Mujibur Rahman)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그들의 제안은 그 자리에서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제안을 주도한 줌어 지도자들은 반국가 활동과 분리를 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이 암살된 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지아우르 라흐만(Ziaur Rahman) 장군은 반란 위협과 군사적인 대치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CHT를 안전 지대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거기에 반대하던 JSS는 결국 “산티 바히니(Shanti Bahini)”라 불린 무장 저항 단체를 조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상황은 지아우르 라흐만 정권의 반게릴라 진압작전이 급격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뒤로 지금까지, CHT의 역사는 살인과 인권침해, 고향 땅에서의 대규모 추방으로 점철되었다. CHT에서의 반게릴라 진압작전은 난민들이 대거 인도로 유입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1979년과 1981년, 1984년, 1986년에는 그 추세가 특히 두드러졌다(Timm, 1992). 안보와 개발을 이유로 한 주민 추방과 마을 파괴, 그리고 군사작전은 수 천명의 주민들을 내쫓았다. 1980년과 1993년 사이, 지역 인구에서 벵갈리족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CHT지역에 들어온 방글라데시 정착민들과 군대는 열 한 차례에 걸친 학살과 수많은 약탈 행위를 저질렀으며, 마을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970년대 초, CHT 전역은 민간 행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대신 군사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1976년, <CHT 개발위원회(CHTDB)>는 CHT에서의 군사점령과 군 기반시설 개발을 더욱 강화해나갔다(Moshin, 1997).

이런 상황은 JSS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1997년까지 3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그 기간 동안 반게릴라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강제 추방과 탄압, 평지 출신 벵갈리 정착민들의 계획적인 정착은 인도로의 탈출을 거부하고 남아있던 지역 주민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다시 CHT로 돌아온 수많은 난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이미 벵갈리

정착민들과 군대의 손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또다시 자국내 난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노르웨이 난민협회(NRC)>가 펴낸 전세계 자국내 난민(IDP)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분쟁이 벌어지는 동안 약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주민들이 쫓겨나 국내 여기저기에서 난민으로 떠돌아야 했으며, 약 7만 5천 명은 인근 인도로 탈출해 역시 난민이 되었다고 한다(NRC, Dec. 2003).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 **CHT**를 향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태도

1971년에 방글라데시가 독립국가로 된 뒤, CHT의 줌머인들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초대 총리였던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은 1972년 제헌의회에서 국가의 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CHT 줌머인들의 존재를 인정하길 거부했다:

우리의 이념은 명확하다. 이런 이념을 통해 우리는 독립을 쟁취했으며, 그 이념은 이 나라의 토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즉, 민족주의-벵갈리 민족주의-가 이 나라의 핵심 기둥이 될 거라는 것이다. 벵갈리 민족주의는 벵갈리의 문화와 유산, 영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벵갈리 사람들이 치렀던 희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sup>15</sup>

1972년에 채택된 헌법에서는 방글라데시가 단일 민족, 단일 문화를 가진 민족 국가이며, 그 안에 벵갈리 민족을 제외한 어떤 공동체나 민족을 받아들일 여지는 없다고 선언했다. 헌법 9조에는 이렇게 씌어있다:

동일한 언어와 문화에서 비롯되어, 독립 전쟁 과정에서 단결되고 결연한 투쟁을 통해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서의 방글라데시를 일궈낸 벵갈리 민족의 단결과 연대는 벵갈리 민족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sup>16</sup>

뿐만 아니라, 3조(1항)에서는 방글라(*Bangla*)를 국어로 선포했으며, 6조(1항)은 ‘방글라데시 국민이라 함은 벵갈리족을 뜻한다’고 천명했다. 간단히 말해, 방글라데시란 국가는 전형적인 민족국가로 이뤄져 있으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

<sup>15</sup> Parliament Debates 1972 (Dacca: Government of Bangladesh, 1972),

p. 20

<sup>16</sup> Ministry of Law,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Dacca: Government of Bangladesh, 1972), p. 5

안에 존재하는 인종적 다양성은 그냥 묻혀졌던 것이다. 방글라데시 내의 다른 문화와 소수 민족 집단들의 존재는 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벵갈리 민족에 동화되어야만 했다. 아메나 모신(Amena Mohsin)이 말한 바와 같이, 사실상 ‘소수 민족들에게는 절대 어떠한 여지를 준다거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 차원의 주장이었다.’<sup>17</sup>

뒤이은 국가 건설 정책과 정책 결정권자들의 태도는 헌법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는데, 주되게는 소수 민족들을 벵갈리 민족으로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CHT 문제에 대한 주류 정당들의 태도가 한결같이 똑같았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CHT의 토착 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벵갈리인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근거로 그 존재를 인정받기를 열망했다. 그러나 <아와미 연맹(Awami League)>이든 BNP(방글라데시 민족주의 정당)든, 아니면 이슬람 민족주의 정당인 <제맛 이 이슬람(Jamaat e Islam)>이든 간에, 주류 정치세력들은 하나같이 토착 주민들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언어 정책에서부터 국가의 역사와 학교 교과과정, 그리고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은 벵갈리 민족국가라는 과업을 달성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유일한 예외라면, 벵갈리 언어를 지키다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벵갈리어 순교자들의 날’인 2월 21일이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세계 모국어의 날’로 지정된 2001년에 CHT 줌머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경우만을 들 수 있을 뿐이다.

#### 자치 운동에 맞선 방글라데시 정부의 대응조치들

방글라데시 정부와 그 엘리트층의 동화주의 경향이 줌머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음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그리고 그들의 저항이 자치권 운동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정부는 정치적인 해결책 보다는 군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자치권 운동에 맞선 정부의 대응 조치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기동을 축으로 이뤄졌다. 하나는, 줌머인들의 저항 운동이 방글라데시의 민족 국가 보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문제이며, 따라서 군사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지역 주민들을 수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벵갈리인들을 CHT로 계획적으로 이주시킨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계획이었다.

---

<sup>17</sup> Amena Mohsin, "Militaris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p.1. 이 문서는 1997년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CHT에 관한 국제평화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계획을 통해 반란을 진압하고 민족적 통합을 촉진하게 될 거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었다.

대규모 인권침해가 널리 만연하게 되었고, 방글라데시 군대는 수많은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 1979년 10월 5일, 정부군이 무바차리(Mubachari)에서 비무장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최초의 대규모 살인극이었다.<sup>18</sup> 그리고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그 뒤 1980년 3월과 1986년 5월 사이에 군대와 벵갈리 정착민들에 의한 훨씬 더 많은 학살들이 저질러졌다고 한다.<sup>19</sup> 특히 1980년 3월 25일에 일어난 카우칼리(Kaukhali) 학살은 이전에 CHT 줌머인들을 상대로 자행되었던 만행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전해진다.<sup>20</sup> 그 결과, 수천 명의 줌머인들이 고향에서 강제로 쫓겨나 인근 인도로 피신하게 되었다.<sup>21</sup> 적어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1977년과 1997년 사이에 일어난 총돌로 살해되었다.<sup>22</sup>

군사적인 조치들과 더불어, 방글라데시 정부는 반란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벵갈리인들의 CHT 정착 사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 기본적인 목적은 JSS가 이끄는 반란을 억누르기 위해 그 지역의 인구 구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 CHT에서 벵갈리 인구가 토착 주민들을 수적으로 압도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다.<sup>23</sup> 게다가, 벵갈리인들이 도착한 1970년대 말과

---

<sup>18</sup> Selim Samad, "What is Happening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in Bengali), Robbar, 22 June 1980.

<sup>19</sup> Amnesty International, Bangladesh: Unlawful Killing and Torture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1986).

<sup>20</sup> 학살은 카우칼리 마을의 한 불교사원에서 일어났다. 1980년 3월 25일, 방글라데시 군의 지역사령관이 노후한 사원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군인들은 무차별적인 발포를 시작하여 최소한 40명을 살해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정부의 보도통제로 인해 당시의 학살은 외부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sup>21</sup> 53,000 Hill People fled to India in the 1980s and many more rendered homeless and were displaced internally.

<sup>22</sup> The Daily Star, 2003.

<sup>23</sup> The Bangladesh Census of 1991 puts the figure of Bengali population in the CHT at 49%, which is suspected by many. The actual figure is thought to be higher than 50%.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CHT에서 식량 배급을 중단 없이 받아온 사람들은 벵갈리 정착민들 밖에 없다. 인도에서 귀환한 난민들조차도 정부로부터의 식량 배급과 지원이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정부는 난민들이 인도로부터 귀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 지원을 중단했던 것이다.

### CHT에서의 시민사회의 형성

위에서 언급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CHT의 역사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배적인 정치 시스템에서 발생한 현상이나 지배적인 정치세력에 의해 초래된 변화, 예를 들어 영국령 인도의 분할이나 방글라데시의 독립, 셰이크 무지브 총리나 지아우르 라흐만 대통령의 암살, 혹은 개발의 측면에서 보자면 캡타이(Kaptai) 수력발전 댐의 건설, 평지 출신 벵갈리인들의 강제 정착, CHT 지방의회와 그 밖의 행정기구들의 설립 등으로 빚어진 결과를 토대로 묘사되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모두는 줌머 민족의 삶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줌머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한 방관자 입장에 머무르지는 않았다. 그들은 개별적으로나 조직적으로 현실에 맞섰고 개입해 들어갔다.

줌머인들이 취한 첫 번째 행보는 수천 명의 집을 앗아간 캡타이 수력발전 댐 건설(1957-1962)로 야기된 고통에 맞서 저항을 조직한 것이었다(Mohsin and Chakma, 1992:294-295). 이 운동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를 깨닫게 만드는 각성 운동으로 나타났고, 힘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당시 운동을 맨 앞에서 이끌었던 인물이 마벤드라 나라얀 라르마라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운동은 ‘교장의 운동(Headmaster’s Movement)’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이 그 운동을 통해 랑가마티 공산당을 조직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색채가 가미되었다. 나중에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뒤인 1972년 3월 7일에 마벤드라 나라얀 라르마의 지도 아래 <파르보띠요 차또그람 자나 삼호티 사미티(Parbottyo Chattogram Jana Samhiti Samiti)>가 결성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는 이미 학생들의 전선조직인 <파하리 차뜨라 사미티(Pahari Chattra Samiti)>가 랑가마티 대학에 강력한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던 때였다.

시간이 흘러 줌머인들은 이전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중앙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줌머인들의 상황이 언제나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 뒤이은 정권들이 취한 정책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무장조직인 <산티 바히니>가 활발히 전투를 벌이던 시기에 군대의 마을 습격은

흔한 일이 되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군대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다. 통행 금지가 일상화되었으며, 시장에 가려고 해도 통행증이 필요했다. 물품 배급도 일상이 되었다. 모든 파하리(Pahari, 벵갈리인들이 줌어인들을 부를 때 쓰는 말. 옴긴이)는 잠재적인 <산티 바히니> 조직원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영역에서든 민간인들로부터의 저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JSS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휴전에 합의한 뒤에 기습공격이 잦아들면서 보통 사람들은 약간의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휴전이 연장되고 에르샤드(Ershad) 정권과 JSS 간의 대화가 시작된 동시에 지방의회가 설치된 1980년대 후반, 주민들은 군대의 만행에 항의를 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전보다는 좀더 열려있다고 느꼈다. 비록 JSS는 줌어인들이 지방의회를 거부할 것을 요청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공간이 열리면서 JSS 내에 <파하리 고노 파리샤드(Pahari Gono Parishad, 이하 PGP)>, <파하리 차뜨라 파리샤드(Pahari Chattra Parishad, 이하 PCP)> 등의 정치 분파들이 생겨났고, 시간이 흐른 뒤인 1990년대에는 <CHT 여성연맹(Hill Women's Federation, 이하 여성연맹)>도 창설되었다.

여성들은 줌어 사회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다. 줌어인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서도 특히 강간과 윤간, 성추행, 성희롱 등이 널리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3년 사이 CHT에서 일어난 줌어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의 94% 이상이 보안군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한다(Guhathakurta, 1997).

CHT에서 진행된 군사화의 본질을 고려해볼 때, 시민사회의 성장은 결코 쉽거나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었음은 위에서 설명한 사실로부터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한 역사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교장의 운동’이라 알려진 주민들의 권리 자각과 교육을 향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는 방글라데시 전체 국민들 가운데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CHT 랑가마티 지역에서 읽고 쓸 줄 아는 주민들의 비율이 특히나 더 높았던 이유였다.

이런 사실은 이 지역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도 관련되어 있다. 교육률이 아무리 높다 할 지라도, 한 사회의 군사화는 점차적으로 시민사회를 잠식해 들어간다. 학교와 대학 같은 사회 기반 시설들은 성장할 수가 없다. 필자는 1977년에 CHT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나는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유니세프(UNICEF)의 프로젝트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상당수 학교들을 완전히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평지 출신의 장학사는 대개의 경우 이들 학교를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더구나, 종종 군사작전이 벌어져 학교가 오랫동안 문을 닫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일시적인 추방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의 비율 또한 아주 높았다. 이는 CHT 주민들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일상화된 모습이었다.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형성을 수시로 가로막아온 군사화의 또 다른 측면은 군대의 분할통치 정책들이었다. 그 틀 안에서 한 사회는 다른 사회와 대립하게 되고, 그러한 갈등은 토착민들을 군대의 협력자와 첩자로 고용함으로써 더욱 악화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갖 태동한 시민사회가 CHT에서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었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국가의 억압과 탄압에 맞선 투쟁은 그 자극제가 되었다. PGP와 PCP, 그리고 <여성연맹>은 그러한 시민사회 조직의 결정체들이었다. 그들은 집회와 모임, 때로는 ‘고노 피크닉(Gono picnic)’이라 불리는 대중 야유회를 조직함으로써 특히 학생들과 대학으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시민사회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 조직들에 가담할 경우 위험에 처하게 될 게 분명했지만, 억압이 점점 심해지면서 처음에는 마땅찮아 하던 부모들조차도 나중에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런 단체들에 가입하는 걸 기꺼이 허락할 정도였다. 그들은 그것만이 자신의 아이들이 존엄을 지키며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잔혹한 군사 작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다.

학생전선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방글라데시 수도인 다카와 치타공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벵갈리 지식인과 그들의 대의명분에 동정적인 입장이었던 인권 및 정치 활동가들과 쉽게 연대할 수 있었다. 그런 지지자들이 벵갈리 지식인 사회에서 결코 주류는 아니었지만, 이들 조직들은 그들과의 연대를 통해 보안군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대량학살과 인종 청소(그 중에서도 1992년 로강Logang 학살과 1993년 나니아차르Naniarchar 학살)에 반대하는 여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여성연맹>의 조직부장이었던 칼파나 차크마(Kalpana Chakma) 납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공동 행동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Guhathakurta, 1997).

#### 국가와 지역사회, 투쟁의 반응

방글라데시 국가, 즉 정부를 비롯해 주요 야당들까지도 지난 수십 년간 CHT 문제에 있어서는 한결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족과 문화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보호조항과 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그들은 벵갈리족과 다른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우파자티(Upajati), 즉 ‘부족’이라 불렀는데, 이는 처음부터 반발과 저항을 불러왔던 측면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은 줌어 민족을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기를 시종일관 거부해왔는데, 만약 그런 사실을 인정할 경우 국제법과 협약에 의거해 줌어인들에게 그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조차도 정부는 지역 지배권이라는 기본 틀의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해왔으며, CHT를 석유와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해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수익의 장으로서만 강조해왔다. 따라서 CHT의 문화는 ‘부족’ 남성과 여성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국적인 춤을 추는 식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전시 문화(showcase culture)”로서만 비쳐졌을 뿐, 그들의 역사나 배경은 거세되었으며 주류 생산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이 글에서 묘사한 사람들의 삶과 생활에서 명백히 드러난 사회적 변화를 위한 그들의 풍부한 잠재력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손쉬운 방법이었다.

이제 오늘날 시민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벵갈리 중산층이 CHT에서의 사태 전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CHT 문제를 둘러싼 시민사회 차원의 운동의 한 예로서, 지금부터는 칼파나 차크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 칼파나 차크마 사건: 배경

군사적인 탄압이 <산티 바히니>로 대표되는 무장 저항으로 이어졌다는 건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지역에 대규모로 주둔하게 된 군대가 채택한 반게릴라 전략이 그 뒤를 이었다. PGP, PCP, <여성연맹> 같은 조직들의 지도 속에 CHT 사람들은 ‘줌어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줌어 민족의 자결권을 요구해왔다.

앞서 말했듯이, 극도로 군사화된 현실에서 줌어 여성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CHT의 줌어인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 특히 강간과 윤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널리 횡행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폭력의 징후들을 제외하고라도, 여성들은 군사통치 기간 동안 수많은 측면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가사일이나 식량을 조달하고 아이를 돌보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특히 그 영향은 특히 더 컸으며, 어찌 보면

그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군사화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Guhathakurta, 2001). 1980년대에 등장해 그 지역 여성들에 의한 가장 조직적인 저항의 형태를 띠게 된 <여성연맹>의 설립도, 그 배경에는 보안군에 의한 여성 강간이나 성희롱 같은 사건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여성연맹>의 조직부장이었던 칼파나 차크마의 납치와 살해 의혹 사건은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협상에서 얻어낸 힘의 범위와 깊이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 사건

먼저 나는 법률지원단체인 <아인 오 살리쉬 켄드라(Ain O Salish Kendra)>가 파견한 인권 조사단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그날 밤 벌어진 사건을 재구성해보려 한다. 조사 결과의 일부는 당시 그 사건을 자세히 다뤘던 전국 일간지 <보레르 카고즈Bhorer Kagoj>에도 실린 바 있다(Akhter 참조, 1996). 조사단은 칼파나의 가족(오빠와 어머니)과 근처에 사는 이웃들을 인터뷰했었다.

선거 전날 밤이던 1996년 6월 11일 자정 무렵, <여성연맹>의 조직부장이었던 칼파나 차크마(당시 23세)가 CHT 바가이차리 타나(Baghaichari Thana)의 뉴 라일랴고나(New Laillaghona)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칼파나는 바가이차리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으며, <여성연맹> 조직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헌신적이고 결단력 있게 수행한 열성적이고 의지가 강한 활동가였다. 그녀와 그녀의 두 오빠들은 그녀의 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뉴 라일랴고나 마을의 한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의 오빠들인 칼린디쿠마르Kalindikumar(일명 칼리차란Kalicharan, 당시 32세)와 랄비hari 차크마Lalbihari Chakma(일명 쿠디람Khudiram, 당시 26세)는 농사를 짓고 있어 교육을 받을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나, 하나 있는 그들의 여동생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칼파나의 두 오빠들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녀의 실종 사건은 6월 11일 밤에 발생했다(Akhter, 1996).

그 날 밤 칼파나의 가족들이 금방 잠에 빠져들 무렵, 한 무리의 남성들이 집을 에워싼 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문이 즉시 열리지 않자 그들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빗장을 부수고 들어왔고, 가족들은 잠에서 깬다. 그들은 가족 모두를 응접실로 모이게 했으며, 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름을 물어본 다음, 자신들의 ‘우두머리’에게 데려갈 거라며 칼파나의 작은 오빠인 쿠디람을 밖으로 끌고 갔다. 나중에 쿠디람은 그들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햇불을 비출 때 그들 중 몇몇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정체를 확인한 인물은 군복 조끼를 입은 페르두스 중위Lt. Ferdous(동벙갈 17연대 코조이차리 부대 지휘관)와 정착민들의 마을방위대(VDP) 소대장 누를 후크Nurul Huq, 그리고 그 대원인 살레 아메드Saleh Ahmed였다.

그런 다음, 페르두스 중위는 쿠디람을 칼파나 집에서 약 150야드 떨어진 개울 끝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그의 눈을 가리고 손을 묶었다. 10분에서 15분이 지난 뒤, 칼파나와 그녀의 큰오빠 칼리차란이 같은 장소로 끌려왔다. 칼리차란의 눈도 가려진 채였으며, 칼파나는 손이 묶여 있었다. 저수지 서쪽으로 끌려간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괴한들은 쿠디람에게 무릎 정도 깊이의 물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잡았고, 또 다른 사람이 총을 쏘라고 명령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쿠디람은 손을 묶고 있던 줄을 풀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총구가 불을 뿜었지만, 쿠디람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 총소리를 듣고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한 칼리차란은 칼파나를 남겨둔 채 살기 위해 내달렸다. 또다시 총성이 울렸고, 그는 칼파나가 ‘오빠, 오빠’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날 밤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쿠디람은 다음날 아침, 마을 면장(Union Porishod Chairperson)과 함께 칼파나를 찾기 위해 인근 우갈차리(Ugalchari) 군 기지로 갔다. 페르두스 중위는 위협적인 말을 퍼부으며 그들을 내쫓았다. 마을에서 온 수색대가 칼파나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호수에서 쿠디람의 룡기(lungi, 남성들이 하체에 걸치는 옷의 일종. 윙긴이)와 탄피만 발견했을 뿐이다. 칼리차란은 나중에 그 탄피를 경찰서(thana)에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지역 행정구역 총책임자(Thana Nirbahi Officer, CHT에서는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이 된다. 윙긴이)는 그 사실을 부인했다.

지역 행정구역 총책임자는 큰오빠인 칼리차란으로부터 구두진술을 받았다. 애초 그 구두진술이 최초 목격자 진술이라고 잘못 알려졌지만(나중에 총책임자는 구두진술을 받은 사실도 부인했다), 칼리차란의 최초 목격자 진술을 받은 건 관할 경찰서를 담당하던 경찰관이였다(Memorandum,1996). 하지만 칼리차란의 구두진술과 페르두스 중위의 진술, 그리고 쿠디람이 중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을 알아본 사람이 칼리차란이 아닌 쿠디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술을 받아갈 당시, 쿠디람은 면장과 함께 칼파나를 찾아 군 기지로 갔었다. 칼리차란이 지역 행정구역 총책임자와 함께 제출했다고 주장한 탄피도

사라졌다. 그 사건을 조사한 인권 조사단은 군사 정부와 함께 지역 경찰이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나, 처음부터 그들은 그 사건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1996년 6월 27일, PCP와 PGP, 그리고 <여성연맹>이 공동으로 연합해 항의파업을 벌였다. 파업 기간 동안, 공권력과 시위대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루팜 차크마(Rupam Chakma)라는 학생이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그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외 모노토시 차크마(Monotosh Chakma)와 수케시 차크마(Sukesh Chakma), 소모르 비조이 차크마(Somor Bijoy Chakma)가 실종됐다(Memorandum, 1996).

칼파나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가 ‘죽어의 땅’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CHT 사람들의 핵심 무장조직인 JSS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사 위원회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성연맹>은 매년 6월 12일을 칼파나 납치일(Kalapna Apaharan Dibosh)로 정해 그녀를 기억하는 행사를 열고 있으며, 사법 체계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후임 정권에서도 군은 완전히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칼파나 납치와 같은 사건들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거나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CHT 주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그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닐 것이다.

#### 칼파나 사건 진상규명 운동에서의 벵갈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

칼파나 차크마 납치 사건을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앞장서 이끈 이들은 주로 파하리 단체들의 연합체, 즉 <여성연맹>과 PCP, PGP 등이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좌파와 인권 단체, 여성 활동가들 가운데 심정적인 지지자들도 그 운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들은 적어도 다카에서는 파하리 단체들과 밀접하게 같이 활동해오고 있다. 파하리 단체들, 특히 그 중에서도 칼파나가 활동하던 <여성연맹>의 저항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방글라데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왔는데, 특히 에르샤드(Ershad) 독재 정권이 붕괴된 뒤에는 그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단체 대부분은 주로 개발지향적이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인권문제에 점점 관심을 기울여 인구의 취약계층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정부와 <산티 바히니>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CHT에 관심을 기울인 단체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CHT 문제는 벵갈리 중산층에게 여전히 미묘하고도 다루기 힘든 문제로 남아 있으며, 방글라데시의 정치형태가 공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성격을 띠게 된 뒤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인권침해에 관심을 기울이는 변호사, 학자, 인권활동가, 좌파정당의 노동자와 학생들은 여전히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많은 파하리 활동가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에서 활동하기를 주저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그나마 1991년에는 파하리와 벵갈리 학자들 및 활동가들을 위한 인권 단체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국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칼파나 차크마 사건을 계기로 CHT 문제는 여성 운동의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여성운동 역시도 과거나 지금이나 주로 개발 지향적이며, 인권으로서의 여성의 권리 문제는 단체들 사이에 개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었다(Guhathakurta,1996). NGO로 등록된 여성단체들은 정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는 각종 강령과 선언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운동은 점점 더 ‘정치적’이 되고 있다. 즉, 국가에 직접적인 반항을 끼치는 쟁점들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단체들과 NGO들은 <여성연합회(Sammilita Nari Shomaj)라는 공동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조직을 통해 그들은 각 단체별 의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야스민(Yasmin)이라는 14세 소녀의 강간살해 사건 등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 야스민 사건이 일어난 뒤, <여성연합회>는 계속해서 여성을 상대로 한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고, 칼파나 사건이 일어나자 그 사건에 집중하게 되었다.

<여성연맹>이 ‘자치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94년 3월 8일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집회에 참여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그들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도 동일한 슬로건을 가지고 참가했었다. 하지만, <1995 베이징 NGO 포럼을 위한 전국 준비위원회>는 토착민 여성들에 관한 각각의 기획팀을 구성하긴 했지만, 공식적인 NGO 보고서의 개요에 그 주제를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일부 NGO들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다루기를 주저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에 반해, 칼파나 차크마 사건 진상규명 운동의 경우에는 많은 인권과 여성단체들이 납치 사건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거리 시위와 항의운동을 벌일 때,

좌파와 노조 활동가들도 그들과 함께 연대에 나섰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했다. 물론 이는 CHT에 대해 특정한 선거공약을 내놨던 정부가 집권에 성공한 뒤 과거보다는 분위기가 좀 더 느슨해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카의 거리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중산계급 활동가들의 입장과 위치는 존재의 최전선, 즉 CHT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후자의 경우에 훨씬 더 절박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칼파나 차크마의 운명은 그런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서글픈 예이다.

위의 사례는 벵갈리 중산층이 이끄는 단체들이 소수민족 문제, 더욱 중요하게는 민족성이라는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CHT 협정이 체결된 뒤, 칼파나 차크마를 위해 적극적인 운동을 벌여온 바로 그 <여성연합회>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장에 <여성연맹>을 대표해 참석한 토착민 여성들이 ‘자치를 얻기 전에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문구가 쓰여진 현수막을 펼치는 걸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여성연합회>의 활동가들은 그 구호가 “너무 정치적”이라며 <여성연맹> 회원들에게 현수막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아마도 그들의 주장은 그 현수막이 방글라데시 국가의 주권에 반한다는 것이었을 텐데, 이는 특히 평화협정을 비판하던 CHT 사람들의 목소리를 비난할 때 방글라데시 정부와 그 군대 조직이 내세웠던 것과 매우 흡사한 주장이었다! 그렇다면, 여성운동은 칼파나 차크마 문제에 참여하면서 과연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그들은 인권의 토대가 되는 정치운동의 특수성을 보지 못하고, 아주 추상적인 인권해석에 기초해 <여성연맹>에 지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운동의 특수성이란 시민, 국가, 민족 자결권, 소수민족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을 뜻한다. 좀더 사회의 한 여성으로서 칼파나 차크마가 직면했던 냉혹한 현실은, 그녀가 등록비가 없어 참가를 포기해야 했던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쏟아져 나온 어떠한 그럴싸한 말들보다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 그녀에게 더 많은 걸 가르쳐주었다(Guhathakurta, 2000).

## 맺음말

방글라데시의 최근 정치상황은 CHT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1월 11일, 방글라데시는 또 다른 정치적 격변을 겪기 시작했다. 군부를 등에 업은 대리정권이 비상사태를 선포

포하고 총선을 연기한 것이다.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군부가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개입했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이 민주적인 제도나 시장을 위해 결코 좋지 않은 징후가 된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과 소수자들, 그리고 특히 CHT의 소수민족들이다. 현행 비상사태 하에서, 군부가 이끄는 통합 부대(Joint Forces)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인, 폭력조직 두목들을 상대로 한 강공책을 펴고 있다. 이런 강공책의 일환으로, 네 개 정당이 연합한 지난 정권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폭력조직 두목 몇 명이 CHT에서 체포되었다. 그러나 CHT의 토착민들의 경우에 군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동기에서 비상사태를 이용하고 있다.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CHT의 줌머 토착민들의 목소리를 억누르는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군부는 비상사태를 이용해 줌머 토착민들과 그들의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 억압의 고삐를 풀고 있다. 정부군은 자기네가 몰래 무기를 갖다 두고는 체포된 사람들의 소지품에서 나온 무기라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그들을 기소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공포된 이래, 적어도 한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살해되었으며, 백 명 이상의 토착민 활동가들이 정부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해 기소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토착민 활동가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아직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정부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활동가들에게 군부와 벵갈리 정착민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포기하고 단체 활동을 그만두라고 지금도 압력을 넣고 있다. 그로 인해 최소한 백 명의 활동가들이 군부의 체포와 괴롭힘을 피해 집을 떠났다.

또한 대리정부 기간 동안에도 토지 강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CHT에 배치된 군대는 비상사태를 이용해 벵갈리 정착민들이 줌머 민족의 토지를 차지하는 정착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최근 사제크(Sajek)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Fact Finding Team, 2008).

이제 줌머 활동가들과 벵갈리 시민사회 간에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비상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제크에서 방화 공격이 일어난 뒤, 방글라데시 시민사회 구성원들로 이뤄진 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칼파나 실종 12주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도 참여했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공격, 임의 구금, 활동을 이유로 한 조작 기소와 같은 형태로 보안군의 보복 행위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은 여전히 줌머 활동가들이다.

따라서 줌머 활동가들과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호하는 일이 급선무다. 뿐만 아니라, 벵갈리 시민사회운동과 특히 건설적이고 순리적인 방식으로 군사화와 민족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여성운동 간의 보다 심도 깊은 대화가 강력히 요구된다. 이것이 바로 국내와 국제 시민사회가 강력히 떠맡아야 할 역할이다.

#### 참고문헌

Akhter,S. (1996) Kalpana Chakma Udhaio Keno? (Why has Kalpana Chakma Disappeared?) in *Bhorer Kagoj*,17 July.

*Ain O Salish Kendra (ASK) (1996) ASK Bulletin, September.*

*Bangladesh Garo Chattra Shongothon, Leaflet distributed for demanding justice for the rape and murder of Garo domestic worker, Levina Howie, 25th August 1999, Dhaka.*

*Bhorer Kagoj, (1996) 24th August*

*Bhorer Kagoj (1996) 16th May.*

*Bhorer Kagoj (1996) 22nd May*

Chakma, K. (1996) Kalpana Chakma's Diary, published serially in *Bhorer Kagoj*, 24th July, 29th September and 6th October.

*Daily Star, The, (1994) sub editorial report, January.*

*Daily Star, The (1995) 5th September.*

Dastidar,P. (1956) *Birkannya Pritilata*, Dhaka, Nabaprokash Bhobon.

Fact Finding Team 1. Moshrefa Mishu et al, Report on 20th April Incident at Sajek Union. <http://www.drishtipat.org/blog/wp-content/uploads/2008/05/sajek2.pdf>

Guhathakurta,M. (1985) Gender Violence in Bangladesh: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Journal of Social Studies*, no.30.

Hill Women's Federation (HWF) (1995) Leaflet distributed in *NGO Forum, Beijing*.

*Memorandum* to the Home Minister presented by 12 organisations, 14.7.96

Mohsin,A. (1996) The Nationalist State and the Chittagong Hill Tracts 1971-1994 in *the Journal of Social Studies*,no.74.

## **Responses of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and the Bangladesh Civil Society to Problems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Dr.Meghna Guhathakurta

### **The Marginalization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situated to the south west of Bangladesh, occupies a physical area of 5, 093 sq. miles, constituting ten per cent of the total land area of Bangladesh. The region comprises three districts: Rangamati, Khagrachari and Bandarban, and its hilly topography with its innumerable ravines, cliffs interspersed with fast flowing mountain streams and rivers and dense vegetation is in complete contrast to most other districts of Bangladesh, which consist mainly of flat deltaic alluvial lands. At the tim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Hills of Chittagong into the British administration in 1860, the region was inhabited by thirteen ethnic groups. These are: Chakmas, Marma, Tripura, Tanchangya, Riang, Murang, Lushai, Bawm and Pankhos, Kukis, Chak, Khumi, Mro and Kheyang. Together these groups identify themselves as *Jumma* (a Chakma word), which stems from the fact that they traditionally practice 'jum' meaning swidden cultivation.

The predicament of the Jumma people began with the building of a hydro-electric dam in the early 1960s, which flooded 1, 036 sq. km. of land, submerged 40 km. of their best agricultural lands and displaced about 100, 000 Jummas from their ancestral lands. In 1964, about 40,000 displaced Chakmas and other indigenous people were forced to migrate into India and were settled in the state of Arunachal Pradesh. After the liberation of Bangladesh in 1971 from Pakistani rule, the founder of the Jana Samhiti Samiti (JSS) Manabendra Narayan Larma was elected to the Bangladesh Parliament from the CHT in the first general election held in Bangladesh. As an elected member of the Parliament, he demanded constitutional safeguards and rights for the Jumma people, but his demand was ignored. Following this effort, he led a Jumma delegation and submitted a written memorandum to Sheikh Mujibur Rahman, the then Prime Minister, with a four-point charter of demands for regional autonomy for the CHT. But not only was this proposal rejected outright, the Jumma leaders were charged with secession and for being

anti-Bangladesh. After the assassination of the Sheikh Mujibur Rahman, the military General who came to power President Ziaur Rahman, considered the CHT to be a security zone under threat of insurgency and further militarized the situation. The JSS was compelled to organise armed resistance group called the “Shanti Bahini”. From there, the situation rapidly turned into that of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und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Ziaur Rahman’s regime. From then on, the history of the CHT has been a series of killings,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displacements of people from their homes and land.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in the CHT have produced fresh waves of refugees into India, most notably in 1979, 1981, 1984 and 1986 (Timm, 1992). The eviction and abolition of villages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reasons and military operations have displaced thousands of villagers. Between 1980 and 1993, the Bangladesh army and the Bengali settlers brought in as a deliberate policy to offset the demographic balance in favour of Bengalis have committed eleven massacres and innumerable plunders and destruction of villages in the CHT. In the early seventies, the whole CHT was brought under military control by undermining the local civil administration. The Chittagong Hill Tracts Development Board CHTDB in 1976 deeply strengthened military occu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military infrastructure in the CHT. (Mohsin, 1997)

This has spanned over three decades until an accord reached between the Jana Samhiti Samiti (JSS) (The armed wing) and the Bangladesh Government was reached in 1997. But three decades of forced evictions, terrorization as part of ‘counter insurgency techniques and planned settlements of plain land Bengalis in the CHT have caused havoc in the life of people who refused to flee to India. After the accord many refugees have returned to find their land taken away and occupied by Bengali settlers and military. They now join the ranks of the internally displaced. According to the Global IDP Database set up by the Norwegian Refugee Council, (NRC) an estimated 50,000 to 100,000 people were internally displaced during the conflict and around 75,000 fled to the neighbouring state of India as refugees. (NRC, Dec. 2003)

### **Attitudes of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towards the CHT in the post –independent Bangladesh**

Following the emergence of Bangladesh as an independent state in 1971, the Hill people were alienated in the process of nation-building. Sheikh Mujibur Rahman, the first prime minister, in a debate in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stitution in 1972 envisioned such a state that denied any recognition of the Hill people:

Our ideology is clear. This ideology has aspired us to attain independence and this ideology shall constitute the basis of this state. Nationalism – Bengali nationalism – shall be the main pillar of this state. Bengali nationalism encompasses Bengal’s culture, Bengal’s heritage, its land and above all the sacrifice made by the Bengalis.<sup>24</sup>

The Constitution that was adopted in December 1972 declared Bangladesh a mono-national and mono-cultural nation-state, making no space for communities or nationalities other than the Bengalis. Article 9 read:

The unity and solidarity of the Bengali nation, which deriving its identity

---

<sup>24</sup> Parliament Debates 1972 (Dacca: Government of Bangladesh, 1972), p. 20

from its language and culture, attained sovereign and independent Bangladesh through a united and determined struggle in the war of independence shall be the basis of Bengali nationalism.<sup>25</sup>

Further, Article 3 (Part I) declared *Bangla* as the state language, and Article 6 (Part I) announced the citizens of Bangladesh were to be known as Bengalis. To put it simply, the state was organized as an ideal nation-state where diversities were subsumed for creating homogeneity. The existence of different cultures and ethnic groups within the state were not only denied, they were also made subject to assimilation to Bengali nation. Indeed, as Amena Mohsin puts it, the ‘state discourse toward minorities has been that the state has categorically refused to create any space or accord any recognition to the minorities’.<sup>26</sup>

Subsequent nation-building policies and the attitude of the policy-makers were informed by the constitution, and primarily driven towards assimilating the minorities into the Bengali nation. It is also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attitude of mainstream parties to the CHT issue has been uniform across the board. The indigenous people of the CHT aspired to be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ir distinctive cultural identity. But whether from the perspective of Bengali Nationalism of the Awami League, or the Bangladeshi Nationalism of the BNP or the Islamic Nationalism of the Jamaat e Islam, they have been resisted by mainstream politics. From language policy to national history and school curricula and textbooks all were devoted to implementing the nation-state project. Only in 2001 when 21<sup>st</sup> February, which was normally celebrated as Bengali Language Martyrs day, was declared by UNESCO as the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 did the Hill people get incentive to celebrate this event and make claims for recognition of their own mother tongue in the national curricula.

### **The Bangladesh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autonomy movement**

Understandably the assimilation tendencies of the Bangladesh Government and its elites were resisted by the Jummas and as it took the form of a movement for autonomy, the Government headed towards a military solution of the problem rather than a political one. The counter-insurgency measures of the Government against the autonomy movement hinged on two key pillars: one wa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resistance was a military problem in the sense that it posed severe threat to the national integrity of Bangladesh; hence it required a military solution. The second was a politically motivated project of planned immigration of Bengalis into the CHT in order to outnumber the local population, and it wa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doing so would quell the insurgency and promote national integration.

---

<sup>25</sup> Ministry of Law,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Dacca: Government of Bangladesh, 1972), p. 5

<sup>26</sup> Amena Mohsin, “Militarisa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on Chittagong Hill Tracts in Bangkok on 23-26 February 1997, p. 1.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became widespread and the Bangladesh armed forces carried out a number of large-scale massacres. On 15 October 1979, government forces massacred unarmed villagers in Mubachari, the first large scale killings,<sup>27</sup> and Amnesty International reported more such massacres in subsequent years committed jointly by the military and the Bengali settlers from March 1980 to May 1986.<sup>28</sup> The Kaukhali massacre on 25 March 1980 reportedly surpassed ‘all previous records of brutalities’ committed against the Hill People.<sup>29</sup> As a result, thousands of Hill People were forced out of their homes and took refuge in neighboring India.<sup>30</sup> At least twenty five thousand people were killed in the conflict between 1977 and 1997.<sup>31</sup>

Simultaneously with military measures,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undertook a vigorous Bengali settlement programmed in the CHT as a counter-insurgency strategy. Its basic objective was to change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the region in order to contain the JSS-led insurgency. The GOB achieved its target of outnumbering the Hill people in the CHT by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sup>32</sup> Moreover, the Bengali settlers are the only people in the CHT who have received uninterrupted rations from their arrival in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to till date. It is noteworthy that even the Hill refugees who returned from India did not receive such uninterrupted rations and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In fact, the government ceased food grains assistance to the refugees not long after their return from India.

### **The Making of the Civil Society in the CHT**

From the above discussion we see that much of the written history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has been sketched in accordance to what had happened in the dominant political system or what has resulted as changes brought about by dominant politics, for example the partition of British India, the independence of Bangladesh, the assassination of Sheikh Mujib, or President Ziaur

---

<sup>27</sup> Selim Samad, “What is happening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in Bengali), Robbar, 22 June 1980.

<sup>28</sup> Amnesty International, Bangladesh: Unlawful Killing and Torture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1986).

<sup>29</sup> The massacre occurred in a Buddhist temple of Kaukhali village. On 25 March 1980, the local commander of Bangladesh armed forces gathered the villagers to reconstruct the aging temple. When the people gathered there, the members of Bangladesh armed forces started to shoot indiscriminately and killed at least 40 Hill People and injured many. A media blackout imposed by the government kept the outside world in dark about the massacre.

<sup>30</sup> 53,000 Hill People fled to India in the 1980s and many more rendered homeless and were displaced internally.

<sup>31</sup> The Daily Star, 2003.

<sup>32</sup> The Bangladesh Census of 1991 puts the figure of Bengali population in the CHT at 49%, which is suspected by many. The actual figure is thought to be higher than 50%.

Rahman, or in the developmental sphere, the construction of the Kaptai hydro-electricity project, the forced settlement of Bengalis from the plain land, the creation of Hill District Councils and other administrative measures. All these left their impact on the lives and livelihood of the Jumma people. But they were not silent spectators to these events. They responded and intervened both individually and organizationally.

The first step they took was to form a resistance movement in response to the sufferings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Kaptai Hydro-electricity dam (1957-62) which made thousands of people homeless (Mohsin and Chakma, 1992:294-295). This movement emerged as an awareness raising programme to make the hill people aware of their rights and stressed education as an important tool for empowerment. Manbendra Narayan Larma, then a Headmaster spearheaded the movement and it became popularly known as the 'Headmaster's movement.' A political colour was added to the movement when some leaders started organizing it as the Rangamati Communist Party. Later in post independent Bangladesh it was from this backdrop that under the leadership of Manobendra Narayan Larma, that the Parbottyo Chattogram Jana Samhiti Samiti was formed on 7<sup>th</sup> March 1972. A student's front, the Pahari Chattra Samiti had already existed with a strong base in Rangamati College.

The people of the hills also perceived different markers, which distinguished one period from another and they were not always related to the change of government in Dhaka but had to do with the different policies followed by successive regimes. For example military raids were common during the time the Shanti Bahini was actively fighting a war. People lived in perpetual fear of the army. Curfews were regular and passes were necessary to go to the market. Rationing of goods was common. Every Pahari was looked upon with suspicion as a potential Shantibahini. During this time there was hardly any scope of resistance from the civilians. After ceasefire was agreed upon by the JSS and the Bangladesh Government the general people could relax a little because the raids were not that frequent.

During the late eighties with prolonged ceasefire and the beginning of talks between the Ershad regime and the JSS, as well as the setting up of the District Councils, the hill people felt there was more political space than before to register their protest against army atrocities. Although the JSS asked the Jumma people to reject the District Councils, the political space available led to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wings of the JSS, the Pahari Gono Parishad, and the Pahari Chattra Parishad and much later in the nineties, the Hill Women's Federation. It was realized that Jumma women constituted the most vulnerable section of the population. Among the many crimes committed against the people of the Hill Tracts, sexual violence such as rape, gang rape, molestation and harassment were particularly prevalent. According to one report over 94% of the alleged cases of rape of Jumma women within 1991-1993 in the CHT were by security forces. (Guhathakurta, 1997).

It is clear from the above that given the nature of militarization in the Hill Tracts. The growth of the civil society was not an easy or smooth process. There were nevertheless historical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its growth. The sixties witnessed a drive for education and awareness of the rights of the hill people known as the Headmasters movement. This was instrumental in raising the literacy rate of the hill people especially in Rangamati, compared to the general literacy rate for Bangladesh.

This information has direct bearing in the potential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this region. But other factors are also relevant. No matter how high the literacy rate, the militarization of a society gradually erodes the civil society. Basic infrastructure like schools and colleges cannot grow. I remember a trip to the CHT in 1977 when I was asked to participate in a UNICEF project for teaching science at primary schools. We saw many schools being totally neglected by government authorities. In many cases the school inspector, who came from the plainland, was not visiting these schools. Furthermore army operation often meant that schools were close for long periods. Temporary displacements occurred so that dropout rates too were high. This is not unusual considering the conditions in which hill people are required to study. Another aspect of militarization which often blocked effective formation of civil society was the divide and rule policies of the military where one community was pitched against the other and this was aggravated by the recruitment of indigenous groups of people as collaborators and spies of the army.

However despite all this an embryonic civil society was in the making in the Hill Tracts and the incentive for this came from the very struggle which the people was waging against state repression and the suppress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he PGP, PCP and the HWF were crystallized versions of suc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y drew support especially from school and college going students, through engaging them in rallies, meetings, often mass picnics called 'Gonopicnic'. Their elder brothers and sisters inducted many in. The dangers of getting involved in such organisations were obvious, but as the repression grew, even parents at first reluctantly then gladly gave permission. They felt that it was perhaps the only way through which their children could walk the streets with dignity, the only way they could protect themselves from ruthless army operations.

Because many of the leaders of the students front was studying in Dhaka and Chittagong, it was easy for them to strike up alliances with the Bengali intelligentsia, human rights and political workers who sympathized with their caus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such supporters in no way formed the mainstream of Bengali intelligentsia. However these organizations were particularly successful in rallying together opinion against some of the worst massacres and genocide committed by the security forces (especially the Logang massacre in 1992 and the Naniarchar massacre in 1993). The joint movement, which demanded justice for the abduction of Kalpana Chakma, the organising secretary of HWF has been dealt with below. (Guhathakurta, 1997).

### **Responses of the State, Community and Struggle**

The Bangladesh state, government as well as the main opposition, over the years have remained more or less consistent in its attitude towards the CHT problem. It has largely been intransigent to the demands for autonomy and also for the demand for constitutional safeguard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and cultural rights. People of different ethnic backgrounds from that of a Bengali has been persistently been called Upajati or tribes, something that has been resisted by the struggle from the beginning. It has also persistently refused to recognize the Jumma people as indigenous people since that would mean conceding them land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s and conventions. Instead, even after the peace accord has been signed,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ee the solution through the lens of a local governance framework and has been emphasizing the CHT as lucrative ground for foreign investments in oil and tourism. The culture of the CHT has therefore been projected in an orientalist fashion as a “show case culture” where exotic ‘tribal’ men and women dance and sing without history or context, estranged from the forces of mainstream production. This is an easy way to marginalize and denigrate the rich potential for social change, which has been evident in the lives and livelihood of the people so far depicted here.

One may now consider how the Bengali middle-class, which now constitutes a large part of the civil society, has been looking at developments in the CHT. As an example of civil society movement rallying together around a CHT issue, I will now elaborate on the Kalpana Chakma case.

### **The Kalpana Chakma Case: the background .**

It has been mentioned above that military oppression also resulted in armed resistance in the guise of the Shanti Bahini. This in turn had led to counter-insurgency strategies adopted by the large military presence in the area. The hill people under the banner of organizations such as the Pahari Gono Parishad (PGP), the Pahari Chattro Parishad (PCP) and the Hill Women’s Federation (HWF) have been deman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the Hill people under the rubric of ‘Jumma nationalism’.

**It cannot be denied that in a militarized situation, Jumma women constitute the most vulnerable section of the population. Among the many crimes committed against the people of the CHT, sexual violence such as rape, molestation, harassment was especially prevalent.**

Aside from these outward manifestations of violence, women were affected in a number of ways during military rule, not least in the daily activities of household chores, procuring food and looking after children, all in an environment that became hostile to their very existence. (Guhathakurta, 2001). Such instances of rape and harassment of women by security personnel wa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behind the formation of the Hill Women’s Federation which emerged in the 1980s to become the most organized form of women’s resistance in the area. The following case of abduction and alleged murder of Kalpana Chakma, the organizing secretary of this organization tells us about the extent and depth of agency, which the members of this organization attained in their negotiation with the Bangladesh state.

### **The Incident**

I will try to reconstruct the incident as it happened that night by using information collected by a human rights investigation team sent by the legal aid organization Ain O Salish Kendra. Part of this finding was also published in a national daily *Bhorer Kagoj*, which gave good coverage to the issue at that time. (see Akhter, 1996). The team interviewed Kalpana’s family (her brothers and mother) and other neighbours in the vicinity.

After the midnight of 11<sup>th</sup> June 1996, on the eve of the elections of June 12, Kalpana Chakma (23), central Organizing Secretary of Hill Women’s Federation was abducted from her home in New Laillaghona village of Baghaichari Thana of the Chittagong Hill Tracts. Kalpana was a first year graduate student of Baghaichari College and at the same time a conscious, vocal and

hardworking activist who fulfilled her role as organizing secretary of Hill Women's Federation with commitment and resolve. She and her two brothers lived together with her mother and sister-in-law in the not-too-well-off neighbourhood of New Laillaghona village. Her brothers Kalindikumar alias Kalicharan (32) and Lalbihari Chakma alias Khudiram (26) were farmers who could not afford an education for themselves, but who wanted their only sister to get one no matter how hard up they were. This was what happened on the night of 11<sup>th</sup> June according to the eyewitness account of Kalpana's two brothers (Akhter, 1996).

Kalpana's household was fast asleep, when a host of men encircled the house and started calling out. The family awoke, and when the door was not opened promptly, they broke open the bolt made up of bamboo. The men gathered everyone into the drawing room and forbade them to put the light on. They started to ask names and on calling on Kalpana's younger brother Lalbihari, They dragged him outside. They announced that he had to be taken to the 'Boss (Sir)'. While they were repeatedly flashing a torch on his face in order to identify him, Lalbihari (Khudiram), claimed he recognised some of the men, as the torch-light was not falling directly on his eyes. The men he recognised was Lt. Ferdous (Kojochari Camp Commander, 17 East Bengal regiment) wearing an army vest, Village Defense Party (VDP) Platoon Commander Nurul Huq and VDP Saleh Ahmed.

Lt. Ferdous then ordered Khudiram to be taken to the water's edge (a stream ran close by) about 150 yards from Kalpana's house. After being taken there, he was blindfolded and his hand tied by the men. After 10 to 15 minutes later, Kalpana and her elder brother Kalicharan was brought to the same place. Kalicharan's eyes were blindfolded at that time. Kalpana was holding his hand. They were taken further west towards a water reservoir. They could guess where they were -- Khudiram was told to go knee deep into the water. Someone caught hold of his hand and another person ordered to shoot. On hearing this, Khudiram, released his bound hand, and jumped into the water. Although guns were fired, Khudiram, managed to escape. When Kalicharan heard the shot, he thought his brother dead, so he left Kalpana and made a dash for his life. Another shot was fired, and he could hear Kalpana crying out: Dada! Dada! (Brother!). Khudiram did not return home that night thinking it unsafe. When he returned in the morning he went with the Union Parishod Chairperson to the Ugalchari Army Camp nearby to look for Kalpana. Lt. Ferdous chased them away with threatening words. A search party from the village started to look for Kalpana but they found in the lake Khudiram's lungi and an ammunition pouch, which Kalicharan claimed he deposited at the Thana. The Thana Nirbahi Officer later denied this

On informing the Thana Nirbahi Officer (TNO), he took a verbal statement from Kalicharan, the eldest brother. Although initially there was a misconception that this also constituted a FIR, this was later denied by the TNO. Kalicharan's FIR was take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Thana (police station) (Memorandum, 1996). However in the verbal statement given by Kalicharan, the mention of Lt. Ferdousi and recognition of him and others by Khudiram was not mentioned, perhaps for the reason that it was Khudiram and not Kalicharan who recognised him, and at the time of taking the statement, Khudiram had gone with the UP Chairperson to the Army Camp in search of Kalpana. The ammunition pouch, which Kalicharan claimed he deposited with the TNO was also not found. The human rights team, which investigated the incident, noted the complicity of the local police with the military administration, which from the very beginning was bent on denying the incident.

A protest strike was staged by the joint coalition of PCP, PGP and HWF in the Hill Tracts on 27<sup>th</sup> June 1996. During the strike, clashes took place between the law enforcing agencies and the protesters, where a school student Rupam Chakma was shot dead and his body taken away. Three more persons, Monotosh Chakma, Sukesh Chakma and Somor Bijoy Chakma could not be traced (Memorandum, 1996).

Kalpana's tragic disappearance is still shrouded in mystery as the enquiry commission report has still to see the daylight, even in a situation where the government has entered into a peace agreement with the JSS the main armed wing of Hill people fighting for 'Jummaland'. Every 12<sup>th</sup> of June is celebrated by the Hill Women's Federation as the Kalapna Apaharan Dibosh (Kalpana's Abduction Day) and demands are repetitively made for transparency of the justice system. But in successive regime we have seen that the military enjoys complete impunity and cases such as Kalpanas are not investigated properly or lack transparency. If such a situation persists then the Hill people would continue to feel angry and that would not bode well for the peace of the region.

#### **The Movement for Kalpana: the role of Bengal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movement which campaigned to bring the issue of Kalpana Chakma's abduction into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ena was spearheaded primarily by the coalition of Pahari organisations: the Hill Women's Federation, Pahari Chattra Parishad and Pahari Gono Parishad but also involved sympathizers from the left, human rights and women rights activists with whom the former group worked closely with at least in Dhaka. Mention has been made of the resistance politics of the Pahari (Hill) Organizations especially the Hill Women's Federation of which Kalpana Chakma was Organization Secretar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been flourishing in Bangladesh particularly after the collapse of the autocratic Ershad regime. Most of these organisations are development oriented, though in the last few years some of them have been increasingly concerned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giving legal aid to vulnerable sections of the population. However, up until the signing of the treaty between the Bangladesh state and the Shanti Bahini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se organizations have been concerned with the Hill Tracts.

The CHT issue has remained a delicate and touchy one for the Bengali middle-class, even after the polity of Bangladesh had attained a formal democratic character.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remained the concern of a handful of lawyers, academic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nd left party workers and students. Many Pahari activists complain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reluctant to take up frontline activity. The Nation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was formed in 1991 as an advocacy organization for both Pahari and Bengali scholars and activists.

However, the Hill Tracts issue has also been receiving the attention of the women's movement as was reflected in the Kalpana Chakma case. The women's movement too had been and still is largely development oriented and the issue of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proliferated among organizations as an instrument of development (Guhathakurta, 1996). Women's organizations registered as NGOs were limited by their manifestos that prevented them from actively getting

involved in political situations. However, recently the movement has been getting more ‘political’ i.e. taking up issues, which had direct repercussions on the state. Women’s organizations and NGOs formed a common platform, the Sammilita Nari Shomaj which enabled them to bypass the limitations of their organizational agendas and protest the rape and murder of 14 year old Yasmin from a broader platform. Even after the Yasmin incident, the Sammilita Nari Shomaj continued to protest state violence against women, later on taking up the Kalpana Chakma case.

It may be mentioned that the HWF had participated in the March 8<sup>th</sup> 1994 rally of the women’s movement with their slogan Autonomy for Peace. They also went to the NGO Forum of the Women’s Conference in Beijing in 1995 with the same slogan. However although the National Preparatory Committee Towards Beijing, NGO Forum ’95 constituted a separate task force on indigenous women, barely two lines were included on the topic in the summary of the official NGO report. This reflected the hesitation on the part of some NGOs to deal with an issue, which had become a matter of political controversy. On the other hand, the movement, which rallied behind Kalpana Chakma, was exceptional to the extent that many human rights and women’s organizations demonstrated on the streets and joined hands with the Left and Trade Union activists in protesting the kidnapping in unambiguous terms. This may have been possible due to the more relaxed atmosphere following the coming to power of a government who had specific electoral promises about the CHT.

However it cannot be understated that the position and status of Bengali middle-class activists fighting for their rights on the streets of Dhaka are very different to those fighting for their rights and dignity in the frontline of existence, the CHT. Needless to say the stakes are much higher in the latter case. The fate of Kalpana Chakma is a sad reminder of this.

The above movement also demonstrates the failure of Bengali middle-class led organizations to engage with questions of ethnicity and more seriously nationality. After the CHT accord has been signed, while celebrating 8<sup>th</sup> march, International Woman’s Day, the same Sammalita Nari Shomaj which has campaigned actively for Kalpana Chakma, turned on a group of indigenous women representing the Hill Women’s Federation who had brought with them a banner saying that their struggle shall stop only with autonomy! The organizers of Shommilito Nari Shomaj asked the HWF members to put down their banner as the slogan was “too political”! It seemed that what was really meant was that it went against the sovereignty of the Bangladesh state, an argument very close to the one being offered by the Bangladesh state and its military establishment especially in denouncing any Pahari (hill) voices who critiqued the peace accord! What had the women’s movement learnt from its engagement with the Kalpana Chakma issue? It seemed that they had rallied their support to HWF on the basis of a very abstract construction of human rights without looking at the specificity of politics in which this right was based on. This specificity meant taking a hard look at notions of citizenship, nation,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ethnicity. The hard realities which Kalpana Chakma faced as a woman of her community taught her more about these things than all the fancy words deliberated at the Beijing Conference, which she could not attend because she did not have enough money to pay for her registration. (Guhathakurta, 2000).

## **Conclusion**

The recent political situation in Bangladesh has affected the Chittagong Hill Tracts in a negative

way. On January 11, Bangladesh began yet another tumultuous political transformation. A caretaker government backed by the military took over power,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nd postponed national elections. Many in Bangladesh were at first relieved that the military stepped in to liberate them from political chaos, but as time went by, people realized that the suspension of the political process did not bode very well for either democratic institutions or the market.

In this situation the most affected are the least empowered, the minorities and especially ethnic population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 Under the current state of emergency, the Joint Forces led by military forces are conducting drive against the corrupt politicians, businessmen and godfathers. As part of this drive, a few godfathers and corrupt leaders of the last four-party alliance government have been arrested in the CHT. However the military forces have been using the state of emergency with a different motive in case of indigenous peoples in the CHT. Basically it has been used to suppress the voice of indigenous Jumma people of the CHT.

The military forces are using the emergency rules to unleash sweeping political repression against indigenous Jumma peoples and their organizations. To materialize their allegation, the government forces have been showing arm recovery from arrestees' possession putting their (army) arms and hence lodging false arm case against them.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at least one innocent villager has been killed and more than 100 indigenous activists including have been arrested by the government forces.

Pressure on indigenous activists by arresting and sending detention of their leaders and threatening to lodge cases against them have not yet stopped; the government forces are still putting pressure on the indigenous activists who are not yet arrested to give up raising voice against military and Bengali settlers and to resign from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 Hence at least 100 indigenous activists left their home place avoiding military arrest and harassment.

It is also reported that land grabbing is continuing even during the period of Caretaker Government. Military forces deployed in the CHT resumed settlement programme of Bengali settlers occupying the land of Jumma people by taking advantage of the State of Emergency. The recent incident at Sajek is indicative of this ( Fact Finding Team, 2008).

The time has come now for more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he Jumma activists and their Bengali civil society counterparts. But given the current situation of emergency,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do. It is true that more than one team consisting of Bangladeshi civil society members had visited the Sajek area in the aftermath of the arson attack, and also joined hands in commemorating the twelfth year of the Kalpana Disappearance day on 12<sup>th</sup> June, but it is still the Jumma activists who have faced the brunt of the wrath of security forces in the form of raids in their households, undocumented detention and trumped up charges as a result of their activism and mobilization.

Protection for Jumma activists and the rights to their fundamental freedoms is therefore considered to be the need of the hour. In addition further dialogue between the Bengali civil society movement and more specifically the women's movement, which have yet to address issues of militarization and nationalism in a constructive and proactive manner, is strongly recommended. This is where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a strong role to play.

## REFERENCES

Akhter,S. (1996) Kalpana Chakma Udhao Keno? (Why has Kalpana Chakma Disappeared?) In *Bhorer Kagoj*, 17 July.

*Ain O Salish Kendra* (ASK) (1996) *ASK Bulletin*, September.

*Bangladesh Garo Chattra Shongothon*, Leaflet distributed for demanding justice for the rape and murder of Garo domestic worker, Levina Howie, 25th August 1999, Dhaka.

*Bhorer Kagoj*, (1996) 24th August

*Bhorer Kagoj* (1996) 16th May.

*Bhorer Kagoj* (1996) 22nd May

Chakma, K. (1996) Kalpana Chakma's Diary, published serially in *Bhorer Kagoj*, 24th July, 29th September and 6th October.

*Daily Star*, The, (1994) sub editorial report, January.

*Daily Star*, The (1995) 5th September.

Dastidar,P. (1956) *Birkannya Pritilata*, Dhaka, Nabaprokash Bhobon.

Fact Finding Team 1. Moshrefa Mishu et al, Report on 20th April Incident at Sajek Union. <http://www.drishtipat.org/blog/wp-content/uploads/2008/05/sajek2.pdf>

Guhathakurta,M. (1985) Gender Violence in Bangladesh: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Journal of Social Studies*, no.30.

Hill Women's Federation (HWF) (1995) Leaflet distributed in *NGO Forum*, Beijing.

*Memorandum* to the Home Minister presented by 12 organisations, 14.7.96

Mohsin, A. (1996) The Nationalist State and the Chittagong Hill Tracts 1971-1994 in *the Journal of Social Studies*, no.74.

### 발제문 3

#### 한국 시민사회의 줌머 운동 연대 방안

수진 (경계를 넘어 활동가)

제한 줌머인 연대(JPNK) 창립부터 지금까지의 활동

JPNK는 1997년 Bangladesh Indigenous Buddhist Association(방글라데시 소수민족불자 연합)이라는 명칭으로 치타공 산악징산악 지역(CHT)의 자치권을 얻기 위한 운동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치타공산악지역(CHT) 현지와 연계된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1997년

12월 2일에 방글라데시 정부와 줌머 인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한국에 체류하던 대부분의 줌머 인들이 치타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현지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2000년 초부터 줌머 인들이 다시 한국에 입국했다. 이 때부터 줌머 인들은 한국 사회에 줌머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줌머 인들은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소들을 방문하여 한국 활동가들에게 줌머의 상황을 알렸지만 실제적인 연대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줌머 인들은 2002년 4월에 Jumma people's network-Korea(JPNK)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줌머 연대운동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국제민주연대와 민변, 피난처,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한 여러 한국 단체와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었고, 2002년 10월에 난민지위 신청을 한 이후에는 줌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다. JPNK는 한국 단체들과 함께 거리 선전전과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 기자회견, 문화행사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2004년에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JPNK 회원들은 한국에서의 줌머 운동도 더 확대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평일에는 이주노동자로 노동을 하고 주말에는 줌머 인권활동가로 활동하는 것이 JPNK 회원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다른 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난민으로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장기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했던 줌머 인들은 일과 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무처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활동가인 로넬 차크마씨가 단체 활동의 대부분을 돌보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JPNK의 활동도 이전에 비해 축소될 수 밖에 없었고 회원들의 참여도도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2006년 말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운영하는 변화의 시나리오 기금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다. JPNK는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변화의 시나리오 기금을 받아 사업진행비와 활동가 1인의 활동비 일부를 지원받아 재정적인 안정과 함께 활동이 대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되었다.

물론 아직 회원들의 활동 참여도가 기대했던 만큼 높아지지 않았고, 회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JPNK의 회원들은 JPNK가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장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한국에서의 줌머 운동에 동참하게 된 새로운 JPNK 회원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다.

#### 한국의 시민사회와 JPNK의 연대 활동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와 JPNK의 연대 활동은 한국에 체류하는 줌머 인들의 난민지위 인정을 지원하는 활동과 치타공 산악지역(CHAT)의 자치권 획득을 위한 줌머 인들의 운동과 연대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JPNK 회원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은 줌머 인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줌머 인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2년에 JPNK의 회원들이 난민 지위 신청을 한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난민담당부서와 피난처 등 난민지원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여러 가지 실무와 법률적인 지원을 하며 난민 신청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활동은 한국에 망명 온 줌머인들이 본국의 탄압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JPNK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JPNK 회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다면 한국에서의 줌머 운동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줌머인들의 난민 지위 획득은 난민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난민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고 난민 지위자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줌머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난민 지원 활동으로서의 줌머 인들과의 연대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그런데 JPNK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줌머 운동과 연대함에 있어서 난민 지원 활동에 비해 JPNK의 활동과 직접 맞닿은 내용의 연대활동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JPNK가 결성된 것은 회원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치타공 산악지역의 줌머인들이 겪고 있는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조직하여 줌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운동이 JPNK와 연대한다고 이야기 하려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했다. 그럼에도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운동은 인권운동가로서의 줌머 인과 활동하기 보다는 난민으로서 또는 이주노동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외국에서 온 활동가로서의 줌머 인을 지원하는 데에 더 큰 중심을 두었다는 것이 솔직하게 내리는 평가이다.

그 동안 줌머 운동을 자신의 운동 의제로 삼으려는 단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국의 줌머 연대 운동은 몇몇 단체나 개인들이 집회나 캠페인, 사진전 등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JPNK의 활동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거나 행사에 단순참여를 하는 정도에 그쳐왔다. 그러다 보니 다른 국내 사안이 생기거나 단체의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JPNK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국 단체나 개인이 JPNK가 처리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일들을 지원하고 JPNK는 그러한 지원을 받거나 부탁해야 하다 보니 서로의 관계가 활동가 대 활동가의 동등한 관계로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일회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도움을 주고 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관계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JPNK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연대할 것인가의 고민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줌머 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국 내 줌머 운동의 모델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JPNK의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자신의 이슈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과의 연대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한국에는 이미 버마, 티베트, 필리핀 등 자국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운동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한국 단체들과 많은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버마와 티베트, 필리핀, 줌머 등의 운동사례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운동을 조직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나 소수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의 운동이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자 하고, 그 연대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동등한 관계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성을 가진 연대활동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내에서 다른 나라의 사안에 연대하는 운동의 모델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한국 사회를 다양한 색을 지닌 성숙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문화는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하나의 코드가 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에 따른 노력이 여러 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몇 년 사이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고 그만큼 이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성숙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국적이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줌머의 인권상황을 주제로 거리캠페인을 할 때 여러 번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왜 방글라데시의 문제를 한국에 와서 이야기하냐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나가도 한번은 꼭 듣는 이야기이다. 아직 한국 사회의 인식은 보편적 인권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평등은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고 이에 덧붙여서 국경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가 한국 사회 내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의 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운동이 더 성장하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운동의 인식 수준이 국경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과 평화의 문제를 한국의 운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안과 차이 없이 우리 운동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운동이 국경을 넘어 만나게 된 사람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세계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한국의 운동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가능한 연대의 방식

JPNK와 3년 째 여러 활동을 함께 해왔던 경계를너머의 경우에도 JPNK와의 연대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물음은 답하기 어려우면서도 곤란한 문제였다. 경계를 넘어가 운동의 중심에 두는 주요 활동과 JPNK와의 연대 활동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끈을 찾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하는 활동 내용을 소개할 때, “우리는 주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는데 방글라데시 소수민족 줌머와 연대하는 활동도 합니다”라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었다. 경계를 넘어가 줌머 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가 아닌 이상 지원 차원의 연대를 벗어나서 줌머의 인권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줌머 운동과 JPNK의 활동에 대한 관심을 접을 수도 없었다. 줌머의 상황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고, 한국에서의 줌머 운동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고민할 수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었다. 아마도 짐작하건대 이러한 고민은 경계를 넘어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줌머 연대운동이 실행할 수 있는 가능한 운동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떠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단체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은 단체 간의 연대체를 꾸리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싸움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 단체간의 연대체를 꾸리는 방식은 많은 경우에 운동의 동력이 오래 가지 못하고 누구도 그 운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두가 손을 놓게 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어느 특정 단체가 줌머 문제를 자신의 운동 의제로 삼기 어렵고, 당장 몇 년 안에 해결될 수 없는 긴 싸움인 줌머 운동의 경우에 단체간의 연대체를 꾸리는 방식은 허울좋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류 언론에서 거의 보도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사람들의 관심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기가 더 어려운데, 안타깝게도 줌머 운동이 그런 경우이다. 버마나 티벳 운동처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고 언론도 꾸준히 보도하고 있는 사안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국제사회나 언론의 관심도에 따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국제사회나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낮거나 빨리 식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운동과 줌머의 사안이 놓여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줌머 연대운동이 장기적인 관심을 담보하려면 규모는 작더라도 일상적이면서 지속적인 활동의 형태가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줌머와 다른 소수민족 운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모임을 꾸리는 형태이다. 이 모임이 자체적으로 줌머의 운동을 고민할 수 있다면 JPNK와의 관계도 서로를 줌머 운동을 하는 동지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줌머 운동을 자기 활동으로 하려는 단체가 있다면, 개인이 참여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줌머 연대운동을 활동의 중심에 둘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고 가능한 한 함께하려는 단체들은 사안별로 유동적인 연대활동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활동 사례로는 만원계와 동티모르 연대모임, 그리고 지금은 단체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임들은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현지의 상황을 모니터하며 자체적인 사업을 만들기도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물론 모임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모임들이 가지는 한계들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 모임들이 진행되었던 과정은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그 자체가 동력이 되어 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 사례들의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줌머 운동의 모델을 고민해본다면 지속성과 동등한 관계가 담보된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방글라데시 치타공산악지대 (CHT) 인권 상황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에 대한 토론  
오경석(국경없는마음)

(1)

세 분의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Meghna Guhathakurta 박사님께서서는 "Responses of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and the Bangladesh Civil Society to Problems in the Chittagong Hill Tracts (CHT)"라는 글을 통해 CHT 문제가 줌머 민족의 인권과 생존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강압적인 동화주의(벵글리 및 이슬람 민족주의) 정책의 산물임을 소상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벵글리 민족들이 지배하는 방글라데시 주류 정치권은 정치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산악지역 소수 민족들(Pahari)을 탄압해왔습니다. 단일 민족주의, 사회통합성의 확보, 개발의 장애물 제거 등이 탄압의 빌미였습니다. 중산 계층으로 이루어진 방글라데시 시민 사회 역시 방글라데시 정부의 소수 민족 차별 정책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줌머 문제의 해결책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 의식과 역량을 갖춘, 벵글리 엔지오 및 여성 운동 진영과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박사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재한줌머연대 활동가인 Subal moni Tangchangya 선생님은 "Democratic movement for human rights of Jumma people of Chittagong hill tracts and the need of international solidarity"라는 발제를 통해, 벵글리 민족과 줌머 민족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치타공 지역의 비극적인 인권 유린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역사적으로 인정되어 온 치타공 지역의 자치권을 부당하게 박탈함으로써 비롯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199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줌머 문제를 여전히 '내부' 문제로 폄하하면서, 국제 사회의 정당한 개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치타공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혹한 인권 유린(과 종족 살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어이없는 명분으로 평화적인 줌머 자치권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인 시민사회 진영과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선생님의 제안입니다.

경계를 넘어 활동가인 수진 선생님은, "한국 시민사회의 줌머 운동 연대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재한줌머연대의 설립 과정과 그 간의 활동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바탕으로, 그 간의 연대 운동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보다 바람직한 연대의 방식을 제안해주었습니다. JPNK 의 한국내 활동은 한국에서의 난민 지위 확보라는 한 축과, 치타공 지역의 자치권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난민 지위 확보에 기여한 것은 연대 운동의 중요한 성과이지만 동시에 한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 수진 선생님의 평가입니다. 난민 지위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됨으로써 재한줌머연대의 더욱 중요한 위상, 곧 탈국가적인 소수민족인권운동기구로서의 위상은 주변화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시민사회와 줌머 연대 사이에, 동등한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일상적이며 지속적인 활동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진 선생님의 제안입니다.

(2)

줌머 문제가 줌머 민족만의 문제일 수 없는, (소수 민족의) 인권이라는 (탈 국가적이며, 탈 민족적인) 보편적인 지평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줌머와 방글라데시 시민사회, 지구시민사회, 한국 시민사회와의, 민주적이며 적극적인 연대 활동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이, 세 분 선생님 발제의 공통된 문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세 분 선생님께 발제 문을 읽으며 들었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본 후, 줌머 문제의 해법과 관련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려 볼 까 합니다. 우선 Meghna Guhathakurta 박사님께는, 줌머 자치권 운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줌머 공동체의 자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혹시, 치타공 자치권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줌머 공동체 내부의 문제는 없는지요? Subal moni Tangchangya 선생님께는, 줌머 민족과 방글리 민족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는 '정치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방갈리 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줌머 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민족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수진선생님께는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탈국가적인 인권 및 평화 의제에 대한 무관심'등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시민사회의 다문화적 감수성이, 줌머 인권 문제와 같은 지평으로 적극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3)

잘 몰라서, 무책임한 이야기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만, 줌머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줌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방식, 운동 모델의 발굴 등에 대한 고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치타공에서는 이 시간에도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를

견딜 수 없다는 '공통점'만 있다면, 연대나 싸움의 방식에서의 '차이'는 그리 과장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과 논쟁은 필요하지만, 토론과 논쟁의 결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토론은 결론없이 끝날지라도, 행동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셈입니다. 줌머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저는 이러한 행동 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활동 및 담론 공간의 확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요, 이주노조 등의 이주민 정치결사체, 그리고 JPNK 모두, 진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국제적인 인권 의제에 있어, 줌머공동체의 '지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주노조 등의 이주민 정치결사체는, 난민 및 소수민족 공동체에 대한, 민족주의적 그리고 합법주의적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JPNK 는 그 이름에 걸맞게 활동의 방식을 '한국 시민 사회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값진 배움과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 발제자 선생님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멋지게 만들어낸 JPNK 로넬 선생님을 비롯한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우정의 인사를 전합니다.

토론 문 2

## 피난처의 줌머난민운동 지원 및 연대 활동

-이호택 (피난처 대표)

### 1. 재한 줌머난민의 난민신청과 인정

- o 2002.4.14. 재한 줌머인10인이 김포에서 Jumma Peoples Network-Korea (JPNK) 결성.
- o 2002.10.17. 난민신청
- o 2004.1. 피난처제출의 ‘줌머인들의 빼앗긴 삶’ 및 2004.5. CHT방문보고서 ‘아직도 계속되는 줌머인의 박해에 관한 보고서’가 참작되어 2004.12. 까지 난민신청자 13인중 1인을 제외한 12인에 대한 난민인정
- o 2005.5. 난민인정 거부된 1인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하여 1,2,3심에서 승소판결확정 난민 인정(최초의 난민인정승소판결)
- o 4명의 가족을 포함하여 현재 17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명이 추가로 난민 신청하여 현재 심사 중

### 2. 피난처의 줌머난민 지원 및 연대 활동

#### 가. 줌머 난민에 대한 입증지원활동

- o 2003.12. 번역서 ‘줌머인들의 빼앗긴 삶’ 발간, 법무부 제출
- o CHT 방문 (2004.4.9- 4.14.) 및 인권실태조사
- o 2004.5. 방글라데시 CHT 방문보고서 ‘아직도 계속되는 줌머인의 박해에 관한 보고서

‘ 법무부 제출

- o 2005.5. 난민인정 거부된 1인에 대한 행정소송지원
- o 2007.9.20-10.5 인도 미조람 및 캘커타의 줌머난민기관 방문조사
- o 2007.12. 번역서 ‘그때 그리고 지금’ 발간
- 나. 시위, 사진전, 캠페인 지원
- o 갈파나납치 항의 방글라데시대사관앞 시위지원 2003.6.12.
- o 마할차리학살(2003.8.27-28.) 항의시위, 2003.9.8. 명동
- o 사진전 -2004.6.13., 을지로입구역, 2004.10.16. 낙성대역
- o 줌머 소식지와 성명서 등 번역

다. 친교와 문화

- o 2002.12. 난민송년의 밤에서 피난처와 JPNK처음 만남
  - o 친선방문 : 2003.5.24. 강화도 갯벌놀이 2004.1.구정명절 이후 수시 방문
  - o 보이사비축제: 2003.5. 2004.4.18. 2005.4.10, 2006.4, 2007.4.,2008.4.21 (2008.4.21에는 그 동안 서울에서 기념식 형태로 개최되던 보이사비행사를 줌머인의 거주지역인 김포양곡에서 지역축제형식으로 개최)
  - o 난민신청자의 가족초청 2004.9. : 난민신청관계로 9년 동안 헤어져있었던 S씨의 처와 9세 딸을 초청하여 가족상봉 후 귀국
  - o 2008.4- 줌머 초록문화마을만들기사업
- 줌머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김포 양촌면 소재 사무실 주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녹지환경을 조성하며 줌머난민 고유의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변환경정비, 옥상포켓공원조성 줌머문화상징물(살리스거)제작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 중

3. 토론 문

경계를 넘어 수진씨의 평가와 같이 한국시민사회의 줌머운동은 그간 줌머인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난민신청절차지원과 줌머 캠페인에의 활동가차원의 참여에 그치는 수준이었고 줌머이슈를 단체적 차원에서 운동과제로 받은 단체는 없었던 형편이다. 피난처도 그간 줌머인의 난민인정에 관한 지원에 집중하고 JPNK의 사진전, 캠페인 등에의 참여와 JPNK의 피난처 활동에의 참여 정도의 연대활동에 그쳤고, CHT지역의 인권개선과 자치를 위한 독립적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줌머난민들은 그들의 목표를 개인적 난민인정에 두지 않고 난민인정을 통하여 얻은 한국에서의 안정적 체류자격과 생활기반을 바탕으로 CHT 인권개선과 자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JPNK를 결성하여 단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난처도 이들의 난민인정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CHT지역의 인권개선과 자치를 지원하는 방향에 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다만 피난처는 이러한 활동을 피난처의 주도로

전개하기 보다는 줌머난민들이 이러한 인권과 자치활동을 전개할 때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대하고자 한다.

토론 문 3

### -장상미(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줌머 이슈가 한국 내에서 우리의 이슈로 소화되기 위해 몇 가지 단계가 필요.

- 왜 한국인가
- 무엇을 기대하나
- 국내에서 연대 문제를 호소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사실과 논리들
  - 88 올림픽 당시 철거문제가 왜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었나
  - OECD 가입 직전까지 이어진 해외 공익펀드의 지원
  - 종교운동과의 연계가 지니는 특성
-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가

국제연대운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이 있음

-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입하기는 우리가 있는 과제가 대부분 (대규모 토목개발사업에 의한 철거와 강제이주, 자원을 둘러싼 국가폭력과 선주민의 무장투쟁 등)
- 민주화의 경험, 비슷한 과제에 대한 선경험 등을 언급하고 알려주는 것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이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응하고 있는 국제 조직들과 일상적 소통 단위가 필요
  - 일시적 연계가 갖는 한계,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와 소통의 수준을 고려
- 이슈의 수준에 따른 연결고리 찾기
  - 해당 이슈를 다룬다는 것만을 넘어서 어떤 액션플랜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적극적 연대 가능성 타진
- 지지성명, 모금, 장외캠페인을 넘어선 장기적 프로젝트에 주목
- 각 단계별 역할설정을 고민할 필요
  1. 국제 조직들과의 소통
  2. 국제연대 전문 조직의 중간소통 역할
  3. 국내 전문 단체들의 노하우 및 문제의식 공유
  4. 당사자 조직의 자립기반 확립 - 재정적 자립과 동시에 운동미션과 전략 부문에서

### Summary in English

To get an effective way to handle issues like Jumma in Korean Civil Society, we need to proceed step by step. Firstly, many Koreans are asking "Why in Korea? We have our own problems!" the same as SuJin presented. They didn't know or cannot link these things with the efforts to help Korean civil society from abroad especially before Korea joined in the OECD. So we should promote how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had been important to us and also to other people on the globe. It is not effective just as an announcement. We need to get more evidences and promote it.

And then, we need to analyze the ability to handle these issues each other.

(-Jang, Sang-mi / Citizens' Action Network (amy@action.or.kr)